



서오릉  
능인마을

2023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2023 Korea Hanok Competition

## 진행과정

### 공모 공고

2023년 6월 13일(화)

### 참가등록 및 작품접수

2023년 8월 28일(월) ~ 8월 29일(화)

### 심사

#### 준공 한옥부문

1차(서류심사): 2023년 9월 11일(월)

2차(현장심사): 2023년 9월 26일(화)

#### 학생 공모전부문

1차(서류심사): 2023년 9월 11일(월)

2차(발표심사): 2023년 10월 5일(목)

#### 사진부문

1차(서류심사): 2023년 9월 7일(목) ~ 9월 18일(화)

2차(종합심사): 2023년 10월 6일(금)

#### 영상부문

1차(서류심사): 2023년 9월 7일(목) ~ 9월 18일(화)

2차(종합심사): 2023년 10월 6일(금)

### 시상식

2023년 11월 2일(목) 경주화백컨벤션센터

### 전시회

1차: 2023년 11월 2일(목) ~ 11월 5일(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

2차: 2024년 1월 15일(월) ~ 1월 19일(금), KTX 오송역사

## 운영 및 심사위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건축공학전공 김기주 교수

이음건축사사무소

이혜원 부소장

필동2가아키텍츠

조경빈 대표

월간SPACE

윤준환 작가

Project CH&F

진효숙 작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김훈석 PD

국토교통부

안광열 건축문화경관과 과장

건축공간연구원

신치후 국가한옥센터장

# 기획의도

주최	국토교통부
주관	건축공간연구원 국가한옥센터
후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 “서오릉 능안마을”

2021년 마스크를 달구었던 세계문화유산 왕릉뷰 아파트

아쉬움을 뒤로 하고 결국 왕릉 전면의 경관을 가로막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문화유산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역사문화환경을 잘 보존하여 후세에 전해야 하겠지만 자본에 의한 개발논리는 보존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서울 서북외곽 고양에 위치한 서오릉은 구리의 동구릉과 더불어 많은 왕릉과 묘가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숙종의 명릉과 예종의 창릉을 비롯하여 영조를 기다리던 정성왕후의 홍릉, 숙종의 후궁 장희빈의 대빈묘 등이 서오릉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곳 서오릉의 남쪽과 서쪽으로 제3기 신도시 중 하나인 창릉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들 하지만 똑같은 실수를 범할 수는 없습니다. 왕릉의 역사문화경관을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않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과 주변경관에 어울리는 집과 상가, 그리고 이들이 모인 마을…….

### 왕릉 앞 마을은 어떠한 모습일까?

큰 길 너머 작은 내를 끼고 전면에 유치원, 초중학교가 있는 곳에 집과 상가가 어우러진 마을. 지속가능한 한옥의 다양성과 현재의 삶을 담고 있는 한옥의 미래지향성이 어떠한 모습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가능성에 더하여 실험적인 한옥을 계획하여 아파트 숲으로 가려질 신도시의 배경이 서오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오릉의 능안 마을이 신도시를 품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개별 건물들의 특성을 살리되 하나의 블록 안에서 짜임새 있는 조합을 만들어 개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공동체적 삶의 모습이 모두 담겨 있는 한옥마을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을은 그런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 차례

진행과정 / 운영 및 심사위원	2
기획의도 / 차례	3
심사위원장 심사평	4

## 준공 한옥부문

올해의 한옥대상	8
올해의 한옥상	14
올해의 한옥공공건축물상	20

## 사진부문

일반인	대상	28
	금상	30
	은상	32
	동상	34
	입선	36
청소년	금상	44
	은상	46
	동상	48
	입선	50

## 학생 공모전부문

대상	54
특별상	58
금상	62
은상	66
동상	74
입선	80

## 영상부문

대상	92
금상	94
은상	96
동상	98
입선	100

# 심사위원장 심사평



2023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학생공모전부문, 준공부문, 사진부문(일반/청소년), 영상부문의 총 4개 부문으로 진행되었으며, 2023년 6월 13일 공고가 이루어졌고 2023년 8월 28일부터 8월 29일까지 공모 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학생공모전부문은 한옥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아이디어 설계공모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준공부문은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경과한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또는 대목장 등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진부문과 영상부문은 한옥에 관련된 자유주제로 직접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출품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진부문의 경우는 일반부문과 청소년부문에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2023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심사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김기주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안광열 과장과 건축공간연구원 국가한옥센터 신치후 센터장이 총괄을 맡았으며, 학생공모전과 준공한옥부문의 심사위원은 이음 건축사사무소 이혜원 소장, 필동2가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조경빈 대표,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안광열 과장, 건축공간연구원 국가한옥센터 신치후 센터장이 참여하였습니다. 사진과 영상부문의 심사위원으로는 월간 SPACE 윤준환 작가, project CH&F 진효숙 작가, EBS 김훈석 PD가 참여하였습니다.

올해의 학생공모전 주제는 '서오릉 능안마을'이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인 서오릉과 인접한 한옥마을 조성 예정지를 대상으로 21세기 왕릉앞에 마을이 만들어진다면 어떠한 모습이 바람직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역사와 전통이 현대와 어우러지는 바람직한 공동체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학생공모전부문에 총 22개 작품이 접수되었고, 1차 심사에서는 심사위원별로 서류심사를 통해 우수작품을 선별한 후 2차 심사대상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2차 심사는 2023년 10월 5일 모형을 포함한 15분 내외 프리젠테이션과 질의응답으로 진행하였고 위원별로 평가점수 종합(계획의 완성도, 대지에 대한 이해도, 한옥 구조와 공간의 이해도, 창의성) 및 토론을 거쳐 최종 수상작으로 본상 8작품 및 입선 5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학생공모전부문 대상인 「[잇 : 다]」는 공모전 주제인 '서오릉 능안마을'에서 주어진 세 개 부지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도 전체를 공간적으로 이어주는 브릿지 등을 계획함으로써 향후 창릉 신도시가 품어야 할 능안마을의 바람직한 모습을 제시한 작품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별상 「화훼의 '기억」은 서오릉과 신도시개발구역 사이의 완충지대로서 대상지 인근의 기존 화훼유통단지 입주자와 원주민을 고려한 경제적인 형태의 한옥 상가를 계획하고, 한옥 주거 유닛 사이에는 공유마당, 공유운실 등을 배치하는 등 실험적인 시도가 돋보이는 작품이었습니다. 금상은「켜켜이 쌓여가다」입니다. 능안마을을 서오릉으로 이어지는 길목으로 해석하여 셋길을 따라 한옥을 배치하고 길을 통해 연지, 마을 마당 등 중심 공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자 한 의도가 잘 드러난 작품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은상을 받은 「시.서.화(視胥花)-함께 꽃을 보는 마을」, 「memorial museum」그리고 동상을 받은 「다채」, 「조화, 도화」, 「溫故: 옛 것에 온기를 불어넣다」 등은 작품의 창의성과 함께 건축적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작품들이었습니다. 공모전의 작품들을 통해 학생들 현대적 관점에서 한옥마을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한 다양성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준공부문은 현장심사를 거쳐 올해의 한옥대상과 올해의 한옥상을 선정하였습니다.

올해의 한옥대상은 '정다운 집'이 수상하였는데, 한옥에 대한 건축주와 건축가의 가치관이 조화되어 여백이 느껴지는 한옥 고유의 공간이 잘 구현되었으며 전체적인 완성도가 높아 현대 주거에서 한옥이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 시사하는 점이 큰 작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올해의 한옥상을 수상한 '천일한의원'은 전통과 현대 건축의 조화를 잘 고려하였고 건축물과 담장이 품고 있는 안마당과 누마루는 마을의 쉼터가 되며, 지역주민에게 필수적인 시설로서 지속가능한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화림원'은 경기도 화성의 비봉, 한적한 시골 길가, 나지막한 구릉을 배경으로 논과 밭을 바라보며 들어선 한옥 카페로 바깥채와 안채의 개념을 지니고 있으며 돌출된 마루와 적당히 닫고 트인 공간을 구성함으로써 공간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사진부문은 총 590건으로 일반인 559건, 청소년 31건의 작품이 접수되었습니다. 심사과정은 서류심사를 거쳐 1차로 작품을 선별하였고, 10월 6일 2차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습니다. 사진 일반부문에서는 본상 6작품과 입선 11작품이 선정되었고, 청소년부문은 본상 5작품과 입선 2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올해의 사진부문 대상 '설일'은 우리의 한옥에서 지붕은 건물의 인상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람으로 치면 인상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한옥지붕의 매끄러운 처마곡선은 한옥의 미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조형미이다. 백양사의 설경을 담은 이 사진은 담장밖에서 바라보는 한옥을 전체가 아닌 담너머 지붕을 보는 장면을 통해 한옥의 아름다운 인상을 보여주는 지붕을 잘 강조하였다. 또한 소복히 쌓인 눈으로 기와의 세부적인 아름다움을 가리지 않되 기와의 선이 강조되는 적절한 순간을 담아내었다. 함박눈이 펄펄 쏟아지는 마치 흑백같은 한겨울의 풍경속에서 붉게 익은 감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색의 조화마저 잘 담은 수작이다. 일반인 부문의 금상 '한국의 전통미'는 집의 전체가 아니라 한옥의 요소인 지붕에서 도리, 처양과 띠살문, 디딤돌로 이어지는 시선으로 밀착해서 들어간 덕분에 한옥의 전통미를 집중하여 잘 담아내었다. 지붕의 부분을 담아내어 세밀한 기와쌓기의 아름다움이 한눈에 들어오게 하였으며, 자연기둥으로 이뤄지는 3칸의 조화로운 비례미를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청소년 부문의 금상 '덕수궁의 밤'은 덕수궁의 중화문을 통해 중화전을 바라보는 야경을 잘 담아내었습니다. 시선을 낮추어 중화전의 위용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위치에서 팔각지붕의 곡선미를

최대한 잘 살려내어 보여줍니다. 적절히 선택한 야경의 시간은 삼도를 지나 중화전의 정면에 이르기까지 세밀한 부분까지 잘 담아내면서도 야경의 본디 시간대의 아름다운 색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영상부문은 총 1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심사과정은 사진부문과 같이 서류심사를 거쳐 1차로 작품을 선별하였고, 10월 6일 2차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작인 본상 6건과 입선 2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영상부문 대상인 "또 다른 한류, 한옥"은 다채로운 한옥의 아름다움을 뛰어난 촬영과 편집으로 잘 표현하였음. 자막의 내용과 영상이 잘 어우러졌으며 한옥의 아름다움이 사계절과 다채로운 로케이션으로 잘 표현된 작품이었습니다. 금상 "수많은 계절 속 한옥"은 매 계절 다른 매력으로 드러나는 한옥의 아름다움을 다양한 항공샷(드론샷) 촬영과 편집을 통해 돋보이게 잘 구현한 작품이었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의 수상작들은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한옥의 우수성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알리기 위하여 '2023 경주한옥문화박람회'에 전시하였습니다. 심사에 참여해주신 심사위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어려운 여건과 상황에서도 공모전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옥의 발전을 위해 늘 고민하고 기획하고 후원하는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 국가한옥센터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12월  
심사위원장 김기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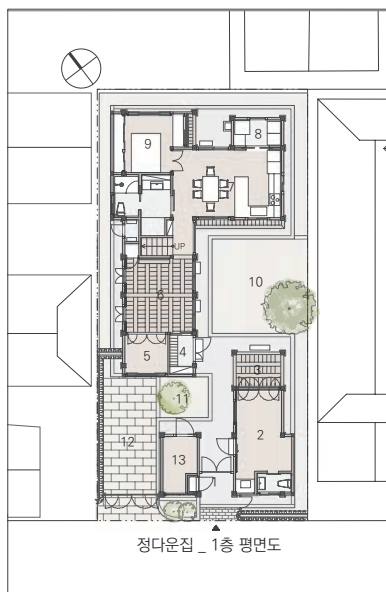
준공한옥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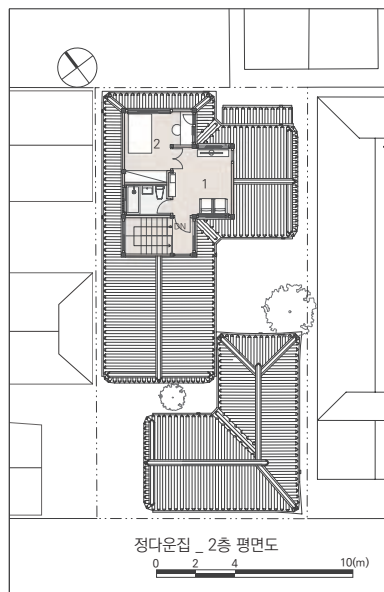
정다운집은 은평한옥마을의 입구에 인접한 대지에 위치하고 있는 집이다.

동서로 좁고 남북으로 긴 형태의 대지에서 은평한옥마을 내의 2층 한옥이라는 조건을 모두 풀어내어 전통한옥의 특성을 살리고자 하였다. 낮은 담장이 둘러싸고 있는 대지 속에서 안채와 사랑채로 채 나눔을 하였으며, ㄱ자의 형태의 안채와 ㄴ자형태의 사랑채가 만나 소박하지만 충분한 안마당을 구성하였다. 도로변에 인접해 있는 사랑채는 단층으로 구성하였는데, 마당과 이어지는 공간으로 누마루를 두었다. 안채에서도 2층 한옥임에도 불구하고 대청 공간의 전통 연등천장을 살리면서 공간을 배치하였다. 도로변에서의 사랑채와 안채의 대청공간을 단층으로 구성하고 2층의 공간을 후퇴하여 배치하였는데, 이는 골목에서 건물을 바라보았을 때 부담스럽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 평면도



- 1 \_ 대문간
- 2 \_ 사랑방
- 3 \_ 누마루
- 4 \_ 환관
- 5 \_ 누마루방
- 6 \_ 대청
- 7 \_ 주방 겸 식당
- 8 \_ 다용도실
- 9 \_ 안방
- 10 \_ 안마당
- 11 \_ 사랑마당
- 12 \_ 주차공간
- 13 \_ 외부청고



- 1 \_ 거실
- 2 \_ 자녀방



# 정다운집(情多雲集)

은평 두 한옥은 은평한옥마을의 입구에 인접한 2개 대지의 다른 건축주가 두 채를 같이 설계를 의뢰하여 동시에 시공된 신축 한옥입니다. 두 채의 건축주들은 기존에 아시는 사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설계를 맡기며 두 채의 건물이 조화롭고 효율성있게 계획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실제로도 이러한 부분에서 장점이 나타났습니다.

두 채의 배치를 살펴보면, 주차장을 두 대지의 중간에 모아 배치하였습니다. 그 옆에 각각의 대문간이 있고 양옆으로 담장을 쌓아 길가와 주거 공간이 잘 분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앙에 주차 공간이 앞마당 역할을 하여, 집에서나 길가에서도 좀 더 여유있는 열린 공간을 형성하였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 비슷해 보이는 두 채지만, 화인원과 정다운집은 건축주의 취향에 따라 건물의 성격부터 많이 다릅니다. 정다운집의 경우 전통 한옥 공간을 선호하여 안채와 사랑채를 분리해 건물을 배치하였습니다. 반면, 화인원은 전통한옥의 공간보다는 시원하고 넓은 모던한 한옥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운이 좋게도, 서로에게 좋은 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다운집 건축주는 넓지않는 2층 공간을 원하였고, 이로 인해 화인원의 채광 사항이 매우 좋아지며 더불어 정다운집의 마당 공간의 비율도 좋게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두 건물 모두 도로변 정면에 대문간과 손님방 공간을 단층으로 두고 2층의 공간은 후퇴하여 배치하였는데, 이는 골목에서 두 건물을 바라보았을 때 부담스럽지 않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화인원과 정다운집은 취향이 많이 다른 건축주 각자의 원하는 공간이 잘 이루어지면서도, 길가에서 보았을 때, 조화로운 형제 같은 집입니다. 마을의 입구에 가장 가까이 배치되어 마을 입구의 상황까지 조화로운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집을 한 채 한 채 따로 설계할때보다 함께 진행하여 공동 설계의 장점을 잘 보여주는 프로젝트입니다.

## 준공 한옥부문 올해의 한옥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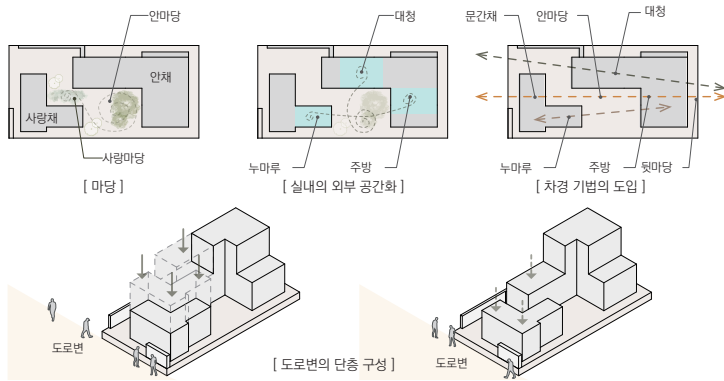
국토교통부 장관상

설계자	어번디테일 건축사사무소 텐들러 다니엘, 최지희
건축주	정보환, 문경민
시공자	정승호, 단한옥 김부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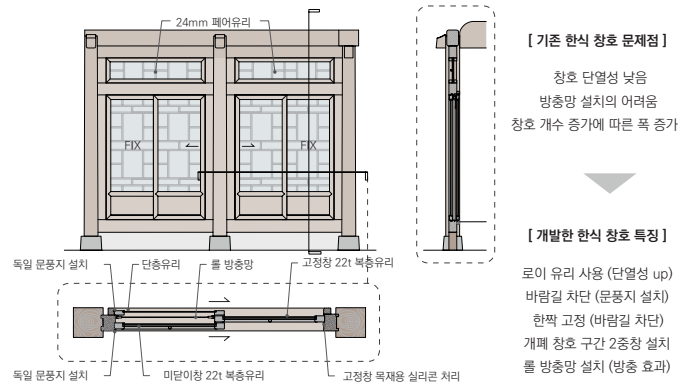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대지면적	236.1m <sup>2</sup>
건축면적	97.01m <sup>2</sup>
연면적	135.32m <sup>2</sup>
규모	지상 2층
용도	단독주택
구조	한식목구조



## 다이어그램



## 한식 창호 개발



좁고 긴 대지의 형태에 맞추어 공간을 배치하고 설계를 진행하였다. 이때 전통한옥의 차경기법을 도입해 공간에 적용하였다. 대문을 열었을 때 대문부터 안마당을 지나 안채 식당의 큰 창호를 통하여 뒷마당과 은평 한옥마을의 모습을 함께 켜켜이 볼 수 있다. 또한, 각 실마다 채광 방식은 사랑채의 낮은 높이를 통해 안채에서도 충분히 채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였다.



안마당에서 바라본 누마루와 대청





누마루방



1층 복도



누마루방 벽지와 불발기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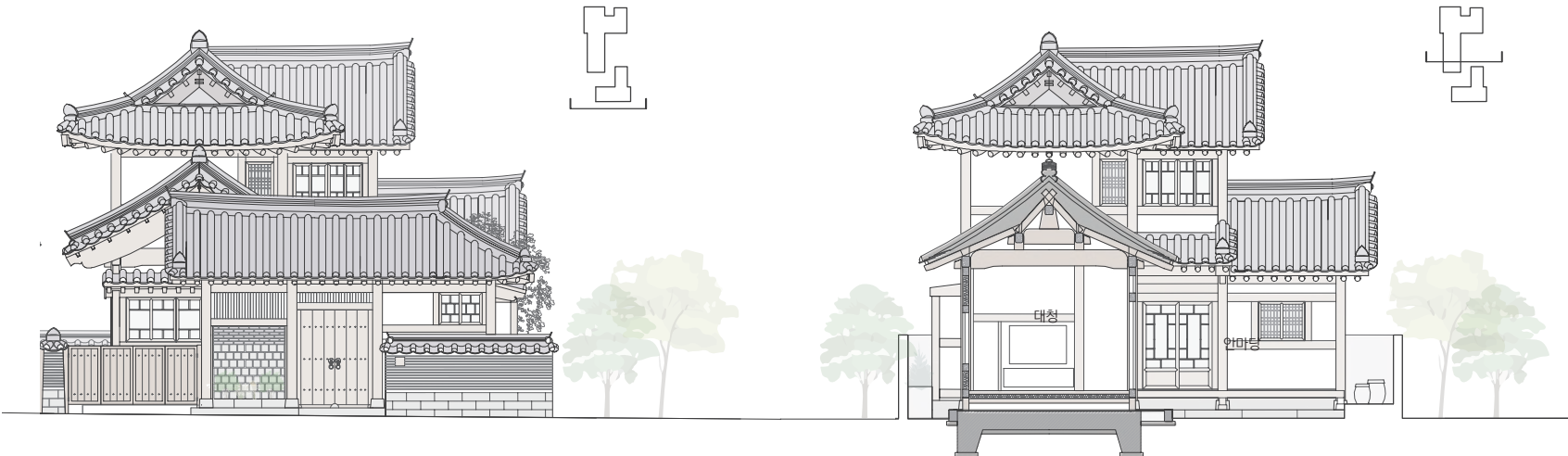


주방 겸 식당



정면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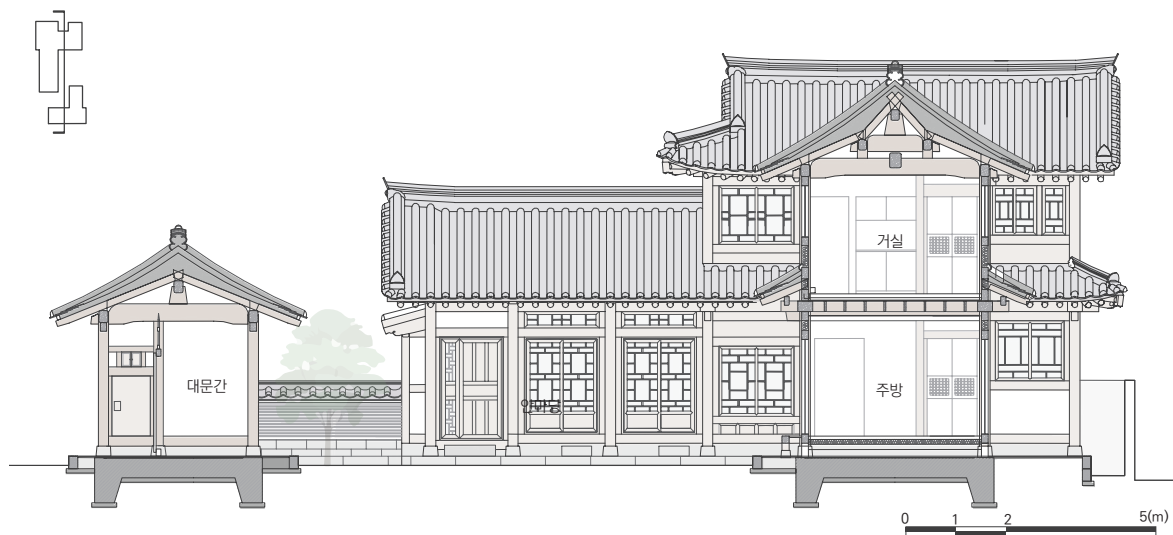


1층 대청



2층 거실

### 횡단면도





## 단정한 배치

### 1. 자연이 드는 한옥

대문을 열며 보이는 누마루는 반외부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틈을 내어 바람길을 만들고 남쪽의 경관과 해가 드는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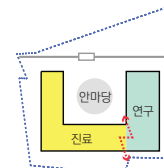
### 2. 두개의 마당

안마당은 이용객이 어울리는 공공적 성격의 마당이 되며, 진료동과 연구동 사이의 작업마당은 작업과 가족들이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개인적 마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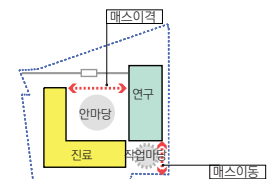
### 3. 한의원 가족들을 고려한 한옥

원장님과 하교 후 막내가 머무를 수 있도록 탕비실과 방을 계획했다. 전실을 기준으로 동선을 분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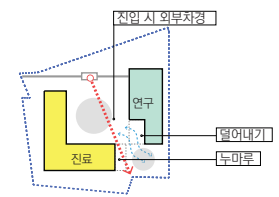
## 평면도



c자형 한옥 배치



내밀한 마당만들기



틈을 내어 바람길만들기

# 천일한의원(天一韓醫院)

치악산 능선과 주포천이 펼쳐진 곳에 선비의 마을을 닮은 한의사의 한의원이 있다 오랜시간 동안 신림리 할머니들의 주치병원으로, 마을사랑방으로 존재한 천일한의원 원장님의 바람은 첫째 요란하지 않을 것, 둘째 할머니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었다. 연년세세 오랜유산으로 남길 바라는 한의원은 뽕내기보단 안전한 선비의 한옥을 닮은 모습이길 바랐다.

## 단정한 배치와 공간 분화

프로젝트의 시작은 한옥이었다. 부지를 최대한 크게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외곽으로 두르는 트인 □자 한옥으로 배치했다. 도로와 면한 부분은 단단한 담장처럼 창을 최소화한 문간채를 두어 서비스 공간으로 계획하고, 후면에 진료공간을 두고 남측 창을 극대화하여 자연과 마주하며 조용하면서도 따뜻한 진료 공간으로 구분했다. 진료공간의 끝에는 건축주가 휴식할 수 있는 개인적 공간을 덧붙였다. 다양한 의견조율을 거치면서 결과적으로 화재 안전성 확보와 추후 탕전기능 확장을 고려하여 별도의 탕전실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형태적으로 충돌하지 않도록 두 건물의 맞닿는 부분이 가장 오랜 시간을 들여 고심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한옥 진료동의 끝부분을 누마루로 두어 반 외부공간으로 조성하였고, 양옥 연구동은 맞닿는 부분에 수직동선인 계단실만 남기고 최대한 공간을 떨어냈다. 이로써 진료동과 연구동 사이에는 바람과 시선이 통할 수 있는 여유로운 누마루라는 틈이 조성되었다. 그 틈은 다시금 남쪽의 햇살과 자연경관으로 채워져 특별함을 갖는다.

담장이라는 요소는 한의원을 직접적으로 내보이는 대신 자연스럽게 공공의 시선에서 한의원을 적당히 감춰주면서도 마주할 수 있는 경계로 작용하고, 대문은 한의원 운영 중에는 항상 열려있어 찾아오는 이를 기꺼이 반기는 역할을 극대화 한다.

## 신림리 사랑방

한옥은 정겹다. 붉은 벽돌도 정겹다.

건축주는 오래된 마을의 오래된 한의원으로 새 보금자리에서도 그간의 정겨운 정서를 간직하고자 했다.

도심처럼 번변한 문화시설이 없기에 새 한의원이 의료적 역할과 동시에 신림 사랑방과 같은 공적 역할을 더해나가고 싶다면 건축주의 말처럼 안온한 마당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모여 지역의 새로운 장소가 되기를 기대한다.

## 준공 한옥부문 올해의 한옥상

### 건축공간연구원장상

설계자	(류와 건축사사무소) 류종미 + 강성원, 김소희
건축주	(천일한의원) 정우혁, 배소연
시공자	(고진티앤시) 강석목, 조문연

대지위치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대지면적	350M2
건축면적	109.89㎡
연면적	162.99㎡
구조	한식목구조 및 철근콘크리트 구조
규모	지상 1층
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한의원)





치악산 능선과 주포천이 펼쳐진 신림리. 마을 내 기존한의원에서 5분거리에 새롭게 한의원을 이전했다.



한의원 정면. 대문과 탕전실이 모두를 맞이한다.



대문을 열면 보이는 안마당과 누마루

## 한의원으로서의 한옥

### 1. 진료공간의 차경

한의원에는 다양한 View Point가 존재한다.

진료를 위한 대기공간에서는 한식 전면창을 두어 주포천과 산 능선을 바라보며 대기할 수 있다.

침 시술이 이루어지는 침구실은 소음을 차단하되 담장 너머 은행나무를 바라볼 수 있도록 복도 끝에 고정창을 내었고, 침구실 베드에 누우면 하늘이 보이도록 상부 고정창을 내었다.

### 2. 안전한 한옥

머름 높이에 맞는 침구베드를 계획하였다. 창호의 마감선을 맞추며, 할머니들이 이용성을 고려하여 높지 않은 머름과 베드 높이를 조절하였다.

주조명은 장여하부의 간접조명을 선택하여 은은한 빛이 들도록 하였다.

### 3. 진료실과 대기실의 가름문

3연동 미서기문을 설치하여 진료실과 대기실의 경계를 구분하였다. 문의 개폐정도를 조절하여 개방 또는 차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진료동의 대기공간. 3연동 미서기문으로 개폐정도를 조절해 언제나 환자를 살핀다.



진료동의 안내실



진료동의 대기공간에서 바로본 진료실. 진료실 너머는 원장님의 개인공간을 두었다.



진료동의 침구실. 다양한 창을 두어 차경이 가능하다.



## 처마선과 직선의 병존

한의원은 한옥(진료동)과 양옥(연구동)이 함께 병존하고 있다. 시작은 한옥의 일부에 탕전공간을 두는 계획이었으나, 화재안전을 고려해 별도로 탕전 및 연구공간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계획이 진행되었다.

직선의 한식담장과 연구동을 하나로 엮어 건물자체가 담장의 연속이 되도록 했다. 도로에서 바라보았을 때 한옥 옹마루에서 시작하여 좌측으로 상승하는 스카이라인을 주기 위해서 양옥의 3층은 반을 외부로 내주어 베란다로 구성했다. 양옥의 외피는 붉은 벽돌로 정하였는데, 근대한옥에 다수 쓰이는 붉은 벽돌을 사용하여 양옥과 한옥 두 동의 이질성을 최소화하면서 친숙한 경관을 연출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목재와 붉은 벽돌, 짙은 회색의 기와와 금속테두리 등 상호간에 색상의 연속성을 가지고자 하였다. 안마당에 들어서면 마당과 면하는 벽에 두 동 모두 적극적으로 창을 내어 상호간 시선의 소통이 이루어진다. 마당에 면한 쪽마루에 둘러앉으면 어느 곳에서든 두 건물이 시야에 함께 담겨 자연스럽게 하나의 한의원 공간으로 인지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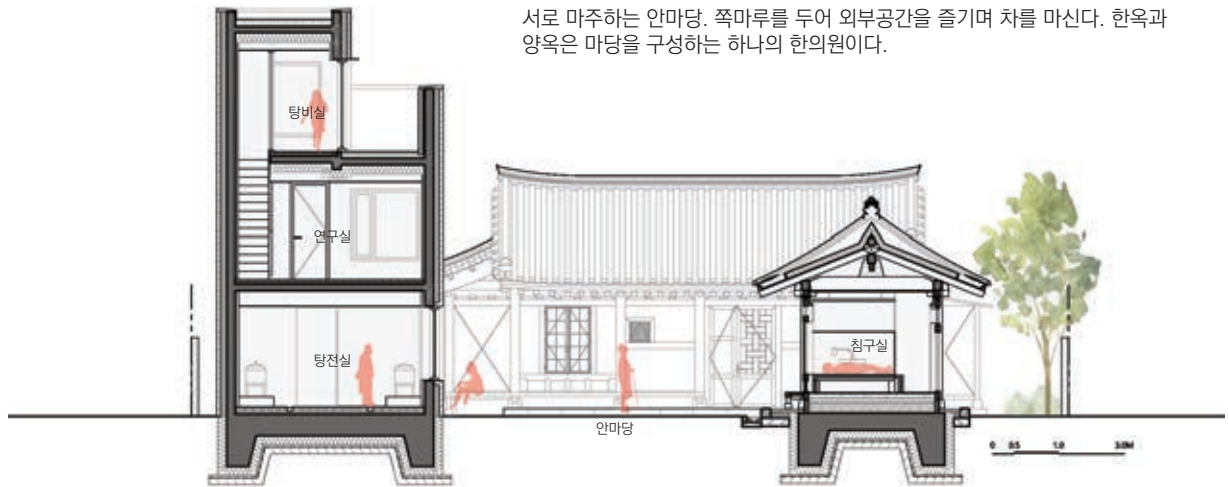


연구동의 탕전실. 통창을 두어 개방감을 드러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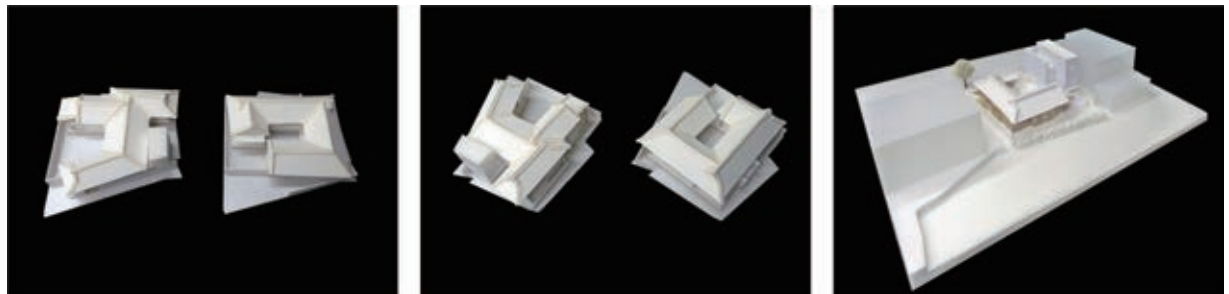


서로 마주하는 안마당. 쪽마루를 두어 외부공간을 즐기며 차를 마신다. 한옥과 양옥은 마당을 구성하는 하나의 한의원이다.

## 단면도



## 매스스터디 과정



### 신림리 사랑방

한옥은 정겹다. 붉은 벽돌도 정겹다.  
 건축주는 오래된 마을의 오래된 한의원으로  
 새 보금자리에서도 그간의 정겨운 정서를 간직하고자 했다.  
 시작에 그렸던 그림과 그 끝에 완성된 건물의 차이가 컸기에  
 그 과정은 건축적 고민으로 가득 채울 수밖에 없었고, 작은  
 규모에 비해 설계기간이 길어졌지만 건축주의 신뢰와  
 애정으로 다시 한의원이 문을 열었다. 도심처럼 변변한  
 문화시설이 없기에  
 새 한의원이 의료적 역할과 동시에 신림 사랑방과 같은  
 공적 역할을 더해나가고 싶었던 건축주의 말처럼  
 안온한 마당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모여 지역의 새로운 장소가 되기를  
 기대한다.



기존 천일한의원



마주보며 담소를 나눌 대기실



새롭게 자리잡은 천일한의원





항공사진



대문에서 바라본 안마당



# 화림원(華林苑)

연화동, 이화동, 도화동 세 개의 마을을 합쳐 세 가지 꽃의 동리라는 삼화리. 전형적인 시골마을 입구에 두 개의 도로와 접한 삼각형의 대지에 그냥 전일부터 있었던 것 같은 소박한 한옥을 짓고 이름을 화림원이라 하였다.

남쪽의 전면도로축에 맞추어 ㄱ자형태의 바깥채와 안채를 안마당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게 배치하였다. 안채 뒤에는 뒷마당과 남은 삼각형 공간에 화계를 조성하여 작은 소나무를 숲을 만들었다.

동쪽 모서리에 두 동의 건물축과 비스듬하게 대문을 배치하여 마을에서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진입하도록 하였다.

대문을 들어서면 ㄱ자 형태의 평면이 서로 마주 보며 어우러져 ㄷ자 집처럼 보여 아늑한 분위기가 되도록 하였다.

안채는 가운데 마루를 두고 좌우로 방을 배치하고, 바깥채는 가변성 있는 마루공간 (방으로 변형도 가능)으로 평면을 구성하였다.

팔작지붕과 맞배지붕 (삼각형 형태의 대지에서 경계선에서 띄어야 할 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처마 내민 길이를 짧게 하고자)으로 혼합해서 계획하고, 안채는 겹처마로 바깥채는 홀처마로 계획하였다.

전면도로와 대지 제일 북쪽은 약 1m 정도의 고저차가 있다. 안마당을 기준으로 바깥채는 기단을 가볍게 한단, 안채는 두 단을 올리고, 가구는 민도리집의 소박하고 평범한 한옥으로 구성하였다. 뒷마당을 지나 뒤편화단은 고저차를 이용한 화계로 조성하였다.

훗날 이곳에 숲이 우거지고 꽃이 만발하여, 새들이 날아들고 화림원을 방문하시는 손님들과 함께 즐겁게 웃는 날이 지속되기를 소망한다.

## 준공 한옥부문 올해의 한옥상

건축공간연구원장상

설계자 (건축사사무소 하오)  
김세원, 이흥원, 김계원

건축주 박영호, 박근해

시공자 (사운재) 최진희

대지위치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삼화길 242

대지면적 770.00㎡

건축면적 166.86㎡

연면적 166.86㎡

건폐율 21.67%

용적율 21.67%

구조 한식목구조

층수 지상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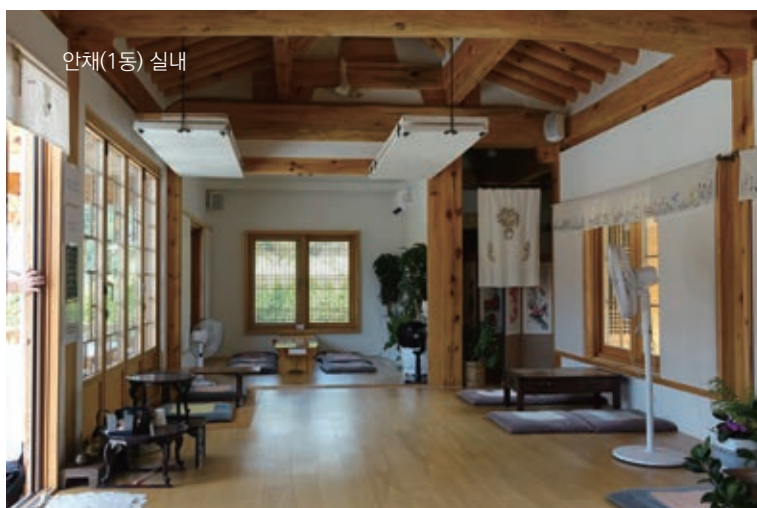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안채(1동)



바깥채(2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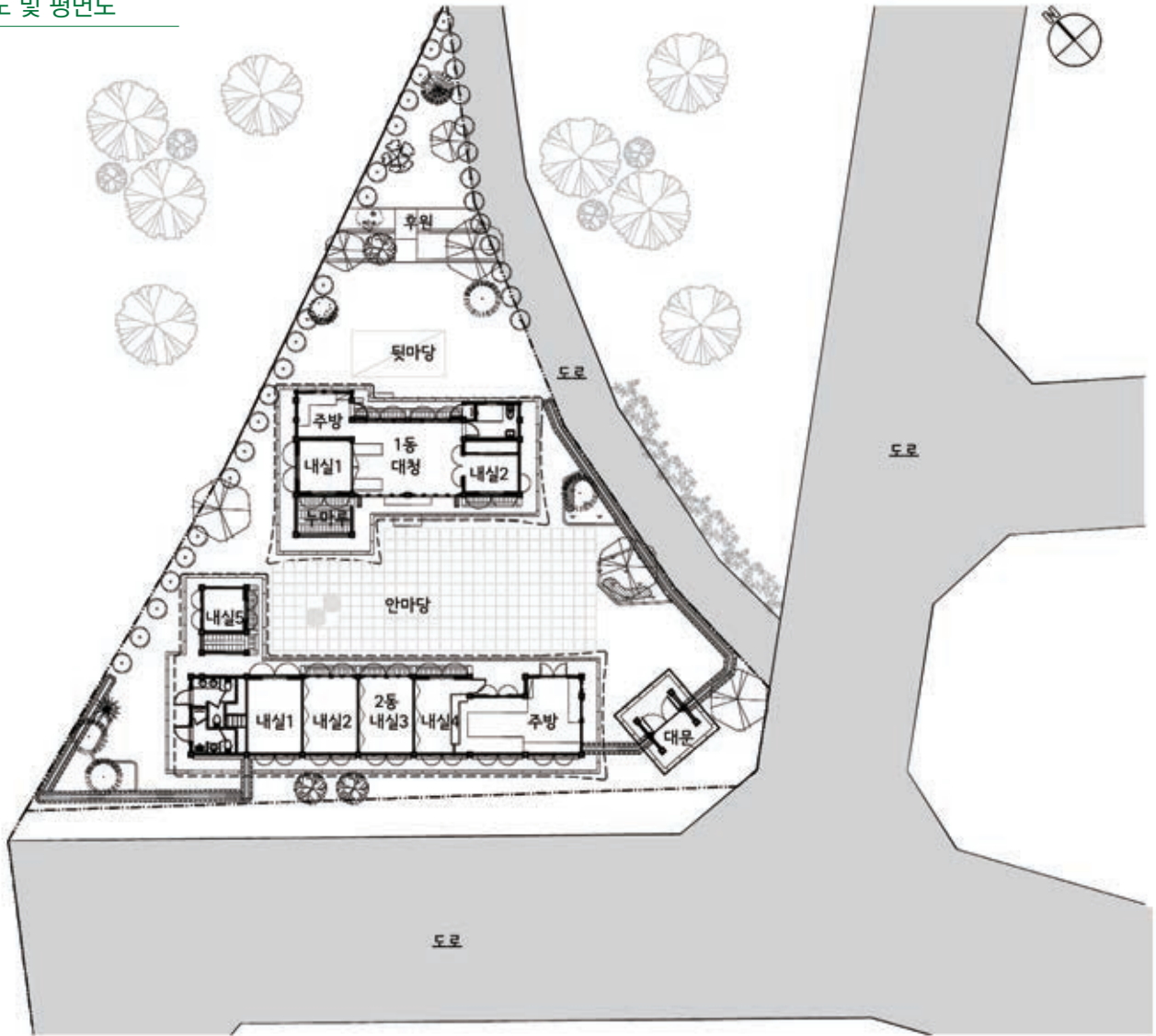
안채(1동) 실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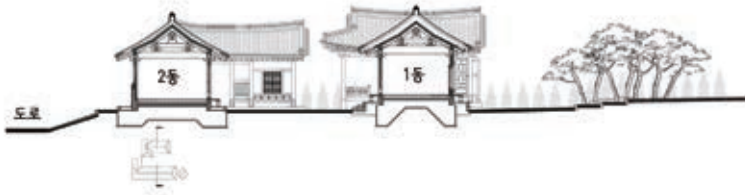
바깥채(2동) 실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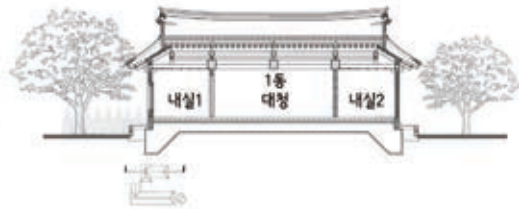
배치도 및 평면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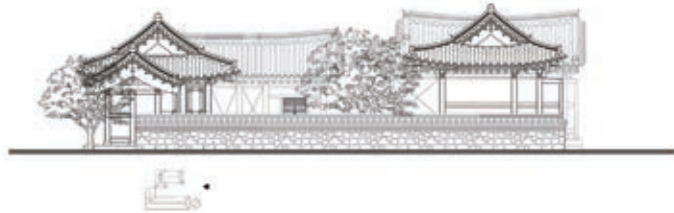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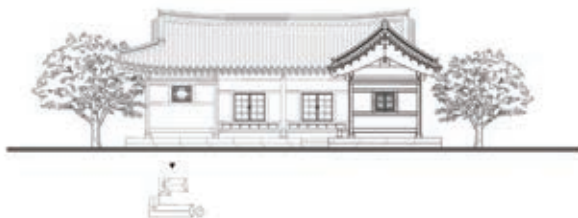
남쪽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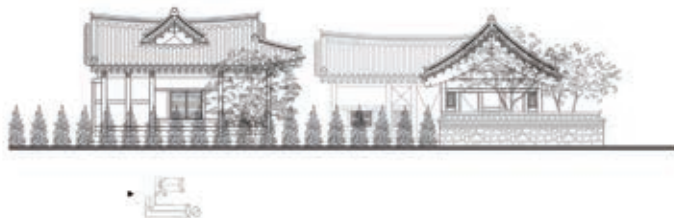
동쪽입면도



북쪽입면도



서쪽입면도











공사중(안채 천장)



공사중(바깥채)



공사중(안채에서 바라본 바깥채)





# 사진부문

-일반인







# 대상

국토교통부 장관상



## 설일

수상자

강미자

촬영장소

장성 백양사







# 금 상

## 한국의 전통미

수상자

배수정

촬영장소

구례 화엄사



# 은 상

## 빛과 한옥창문

수상자      박종권  
촬영장소    서천 문헌서원



# 은상

몽경(夢境)  
- 꿈결 속 희미한  
찰나

수상자

우종성

촬영장소

서울 창경궁



# 동상



## 함박눈이 내리던 날

수상자      신승희  
촬영장소    고창 선운사



## 동 상



### 완재정과 정면승부

수상자  
촬영장소

이효직  
밀양 위양지



# 입 선



## 자연을 품은 독락당

수상자  
촬영장소

김지용  
경주 독락당

## 아늑한 쉼터

수상자  
촬영장소

최원재  
정읍 김명관고택





# 입 선

## 비내리는 서원

수상자 박진영  
촬영장소 경주 용산서원



## 처마선의 아름다움

수상자 박은기  
촬영장소 인제 백담사





# 입 선



## 한옥의 미

수상자  
촬영장소

이화엽  
장성 백양사

## 외암 민속마을

수상자  
촬영장소

박종우  
아산 외암리 민속마을





## 서울과 향원정

수상자      유의민  
촬영장소   서울 경복궁  
                 향원정



## 입 선

###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

수상자      백돈현  
촬영장소   고창 선운사







# 입 선

## 불국사와 다보탑

수상자      심태호  
 촬영장소    경주 불국사

# 마지막 기억

수상자      정진우  
 촬영장소    서울  
                   창덕궁  
                   낙선재





# 입 선

## 낙안읍성 붉은 일출

수상자      한보옥  
촬영장소    순천 낙안읍성









# 사진부문

-청소년





# 금 상



## 덕수궁의 밤

수상자

박선용

촬영장소

서울 덕수궁



# 은상



## 세연정의 여름 풍경

수상자      정재혁  
촬영장소    완도 보길도 세연정



# 은상



## 고택의 여름

수상자      정은송  
촬영장소      밀양 산외면





## 동상

### 과거와 미래의 조화

수상자 김민재  
촬영장소 인천 송도 한옥호텔



# 동상

## 시선 너머

수상자

김아린

촬영장소

상주 고령가야  
태조왕릉 만세각





# 입 선

## 미로의 세계

수상자      박우빈  
촬영장소    산청  
                 남사에당촌  
                 삼백헌



## 옹기종기 한옥 마당

수상자      김준우  
촬영장소    경주  
                 최부자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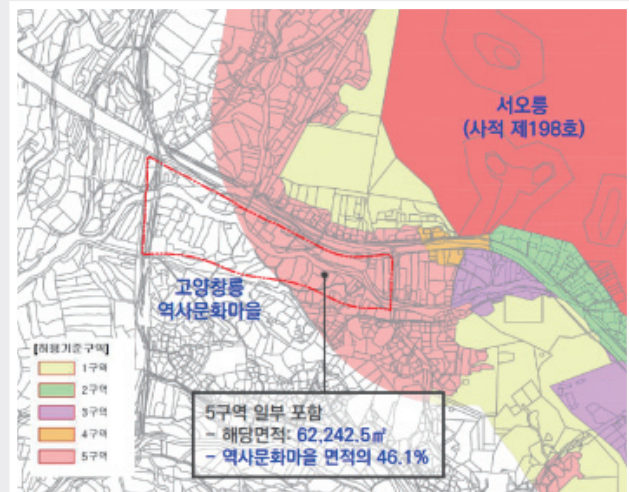


학생 공모전  
부문

# 공모내용



- ▶ 대상지 : 고양 창릉 역사문화마을 예정지역 내 3개 구역 중 참가자가 1~3개 구역(단일 또는 복수 구역)을 자유롭게 선택
  - 창릉신도시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세계문화유산인 서오릉과 인접한 부지(고양시 창릉동 일원, 약 135,000㎡)



※ 대상지 수치지형도(캐드파일)는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구역별 계획지침 : 각 구역별 지침에 따름

구분		(가)구역	(나)구역	(다)구역
면적		30,644㎡	18,355㎡	36,567㎡
도입가능		문화복합용지 (도입시설 예시) 문화시설(전시/공연), 숙박시설, 업무시설, 복합상업시설, 휴게편 의 시설, 진입광장 등	상업용지 (도입시설 예시) 한옥 상가(F&B, 공방, 전통문화 체험시설 등), 저장거리	주택용지(한옥마을) (도입시설 예시) 한옥주택, 공공공간, 공동체 시 설 등
필지면적		자유롭게 제안	247~661㎡를 기준으로 하되 여러 필지를 합필하여 계획 가능	247~330㎡를 기준으로 하고, 주 택 단위 규모와 세대수의 조합은 자유롭게 제안
층수 및 높이		역사문화환경을 고려하되 자유롭게 제안 ※ 지하층 계획 가능		
밀도	건폐율	60% 이내	50% 이내	50% 이내
	용적률	240% 이내	100% 이내	80% 이내
주차장		도입시설 규모에 따라 자유롭게 제안	도입시설 규모에 따라 자유롭게 제안	세대수 기준으로 최소 1대 이상으로 계획하되 주차장 계획은 자유롭게 할 수 있음
건축물의 형태		한옥건축양식, 한옥디자인 건축물	한옥건축양식, 한옥디자인 건축물	한옥, 한옥건축양식
		건축물의 형태 예시		
		한옥	한옥건축양식	한옥디자인 건축물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전통방식이 반영된 건축물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한 건축물	한옥의 일부를 차용하거나 재해석한 현대 건축물

※ 대상지는 사적 제198호(고양 서오릉) 주변으로 그 일부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되나 이에 따른 구체적인 규제사항은  
준수하지 않아도 무방함

▶ 기타사항 : 본 대상지는 현재 계획 중인 지역으로 공모전 지침과 실제 계획(개발)내용은 다름

# [잇 : 다]

[동사]

1. 두 길을 맞대어 붙이다
2. 계속하여 이어나가다



과거와 현재, 신도시와 서오릉,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한옥마을 속 우리는 그들의 이점을 수용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이음으로써 이상적인 마을을 만들고자 한다.

과거에는 공간의 역할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공간들이 이어지고 교차되며 그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게 되었다면 현대에는 공간에 대해 기능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편리하지만 도시의 밀도가 높아지며 빈 공간이 점점 사라지게 되면서 소통과 정이 점차 사라지게 된 것이다.

우리는 현대와 과거 사이에서 상호보완하여 이점을 잇고 이으며 새로운 생활방식의 한옥마을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 # 마음잇다



현대의 기능적으로 나뉘어진 공간들 사이에 소용마당을 통해 경계를 허물고, 나누고 공감하며 사람과 정이 넘치는 공간을 제공한다.

## # 공간잇다



마을 전체적으로 흐르는 동선을 통해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고, 사람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체험, 지나가고 모이며 마주하는 관계를 형성한다.

## # 남아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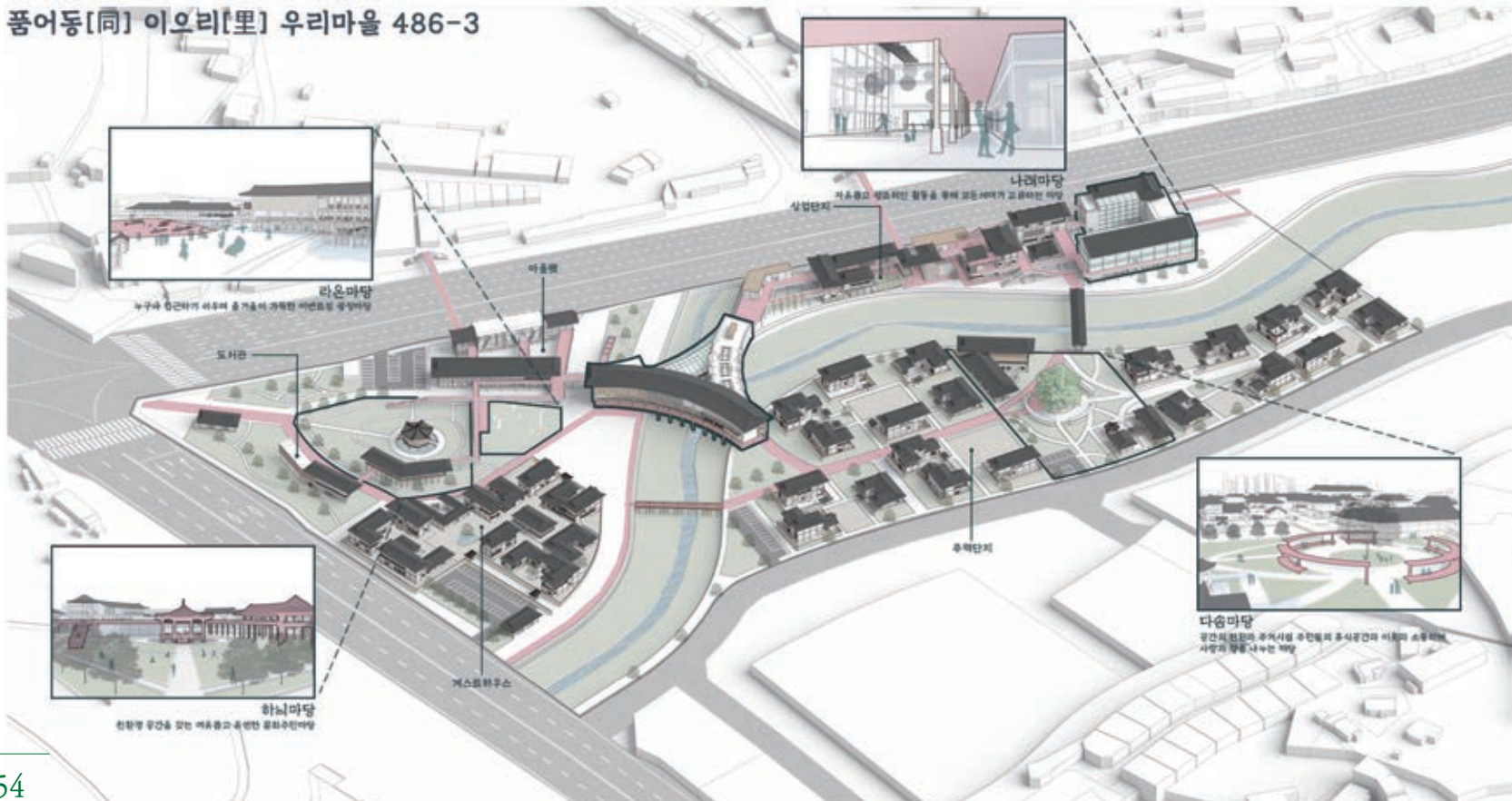
최오릉은 519년의 역사를 가진 채 우리 현대사회에까지 남겨져왔다. 최오릉에게 남아있는 옛 향기를 통하여 우리는 농안마을을 이용해 옛날의 생활방식 그대로 정을 남겨두며 현대의 식민한 도시 사람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풀어놓아준다.

## # 여기, 잇다



사람과 사람, 과거와 현재를 이으면서 생겨난 농안마을이 보여주는 새로운 도시의 해결방안을 통해 앞으로 개발되어갈 고양시 창릉동의 신도시가 소통과 정이 넘치는 모습으로 이어졌으면 한다.

## 품어동[동] 이오리[리] 우리마을 486-3





## [잇 :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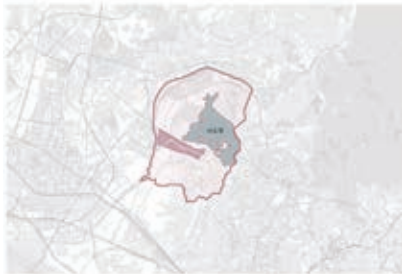
### 오늘날

서오릉은 519년의 역사를 가진 채 우리 현대사회 옆을 지켜왔다. 서오릉에게 남아있는 옛 향기를, 우리는 농안마을을 통해 옛날의 생활방식 속 정을 남겨두며 현대의 삭막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주고자 한다.

현대의 기능적 요소로 한옥의 미를 더하고 과거의 마당과 같은 공간을 통해 현대와 과거의 공간이 이어져 소통하고 공감하며 사랑과 정이 넘치는 공간으로 변화하려 한다.

한옥의 아름다움은 사람들의 걸음을 이끌 것이다. 그 발걸음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체험, 마을의 마당을 통해 마주하게 되며 사람과 사람의 소통을 이어주려 한다.

### 대지현황



서오릉을 품고있는 고양시 창릉신도시는 3기 신도시로 지금 개발 추진중에 있다. 창릉신도시의 중심이 되는 위치에 자리잡고 있으며, 순창천을 따라 걸다보면 자연스럽게 서오릉 농안마을에 도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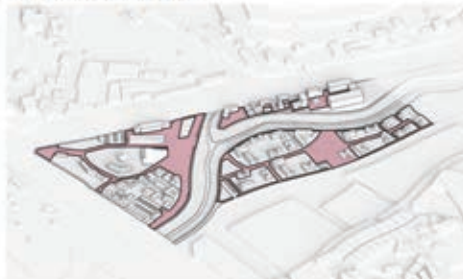
우수한 자연환경과 장엄한 역사가 녹아있는 서오릉 농안마을은 창릉신도시의 핵심으로써 신도시의 현대적 삶 속에서 우리는 전통과 한옥의 가치를 발견해내어 새로운 생활방식을 표현하고자 한다.

### 형성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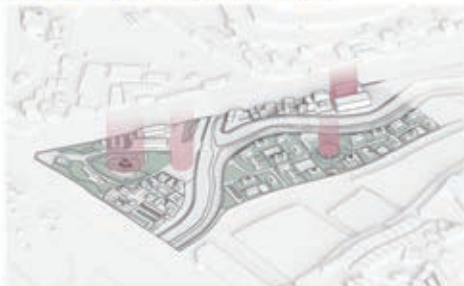
가) 청력에 맞는 건물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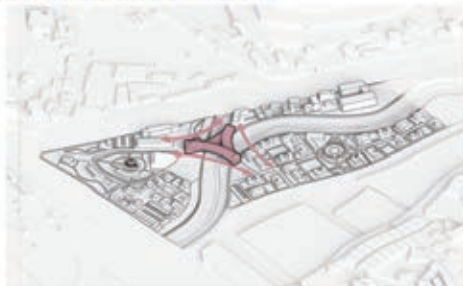
나) 도시 가로로의 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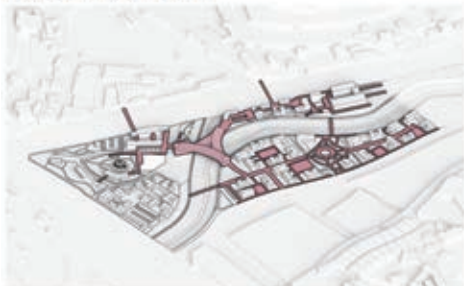
다) 특성에 맞는 각각의 스퀘어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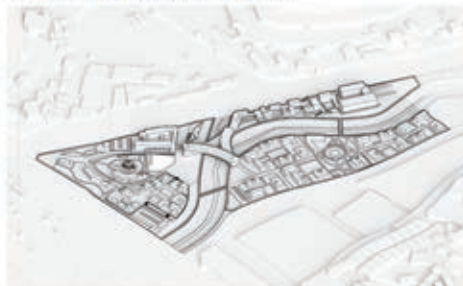
라) 구역을 이어주는 중심건물



마) 공간과 공간의 연결



바) 서오릉과 신도시의 연결고리



# 학생 공모전부문 대상

국토교통부 장관상

## [잇 : 다]

동서대학교

이상하  
김민주  
정진규  
석다운

# 지속가능



한옥단지 내에 전통과 현대의 편의를 재해석한 프로그램 제안을 통해 관광객과 한옥마을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신도시와 서울로 사이에 순환되는 활력을 불러온다. 이것은 더 나아가 마을 자체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한다.

## 한옥의 재해석

### # 기와 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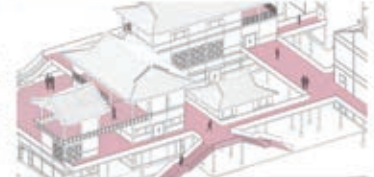
지붕의 역할이 아닌 사람들에게 통풍을 바라볼 수 있는 한칸의 휴식공간

### # 기와 다리



기와 지붕의 상단부분을 보릿지 형태로 재구성하여 사람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

### # 스카이라이프



기존의 뒷마루를 확장 - 건물 사이 사이 메트로 연결되어 수직적 소통이 아닌 수직적 소통의 경험을 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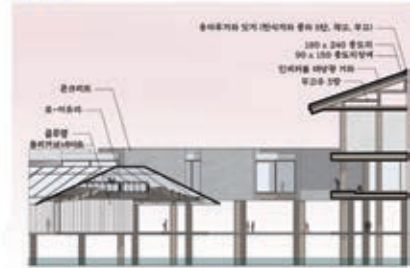
## 구조 하이브리드 건축



## 집합



## 재료



하이브리드 건축이 의미하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가지의 구조가 만나 복합하는 것이다. 구조물의 복합을 통해 더 좋은 한옥의 환경을 만들 수 있었다. 도시 지역의 어울리는 한옥, 한옥의 아름다움과 현대의 내구성, 자연을 풍사시킨 한옥에서 자연의 온정을 바라볼 수 있는 시스템 상호 융 한옥의 실현에 기여하는 한옥마을이 될 것이다.

## 함께 잇다



도시의 속 마을이라는 존재는 어떤 모습일까?

서로 연결되고 이어주는 공간을 만들것처럼되고 지금의 한옥마을은 서로 다른 성격의 공간들을 이어주어 상호작용하고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주거나, 시작하는 장소가 되었다.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불러 일으키는 신도시 또한 한옥마을의 땅을 이어나가고 되어나갈 것이다.

- 가) 주택, 주차
- 나) 마을방
- 다) 상업시설
- 라) 카페
- 마) 소규모 카페 및
- 바) 전시 및 교육문화 이용
- 사) 여장
- 아) 건강생활터
- 자) 카페, 휴게
- 차) 판매부
- 카) 커뮤니티스퀘어 교육

## 평면도

### 3층



- 1 홀
- 2 복귀계
- 3 관공체합장
- 4 야외관공체합장
- 5 옥상정원
- 6 회의실
- 7 연구실

## 시간여행



도시의 속 한옥 마을은 우리 삶의 흔적을 근처에서 바라볼 수 있는 소중한 문화이며 살아있는 보물이라 할 수 있다.

도시를 통해 한옥마을로 서서히 들어왔을 때 과거를 보고 현재를 기념하러 이르 또한 바라볼 수 있는 시간 여행이 될 것이다.

소통, 향이라는 것은 익지로 커내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계획의 이상이 있지만 사이 사이 공을 마당을 통해 소통과 친을 향을 수 있는 여백을 제공하였다.

### 2층



- 1 홀
- 2 강당
- 3 역사전시관
- 4 카페
- 5 구름다리

## 모듈형 한옥 주택

### # 7 자



### # - 자



### # 도 자



### 1층



- 1 홀
- 2 유아실
- 3 안내실
- 4 체험마당
- 5 기프트샵
- 6 행정실



하늬마당



게스트하우스



상업시설 안 주막



나래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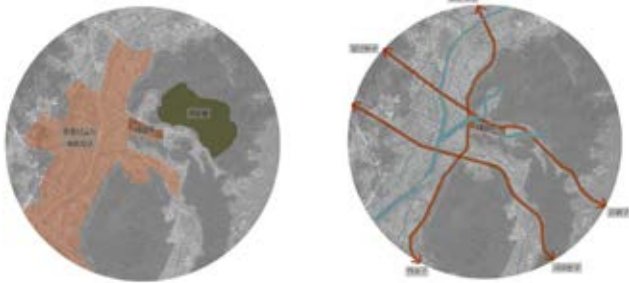




# 화훼의 '기억'

꽃과 식물들이 모여 지역의 정체성을 피워내는 마을

## SITE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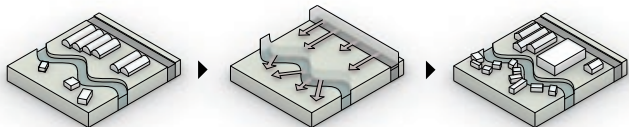


대상지는 서오름이 끝나는 동시에 새로 개발될 창릉신도시가 시작하는 지점에 위치한다. 따라서 이곳은 문화유산의 고즈넉하고 소담스러운 분위기와 신도시의 활기차고 새로운 분위기가 맞닿는 "절점"이다. 대상지에는 서오름 뒤편에서 시작되어 도시를 관통하는 창릉천으로 모이는 자연의 흐름이 있으며, 서울과 고양, 파주 등 교외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를 끼고 있다.

## HISTORY & CONCE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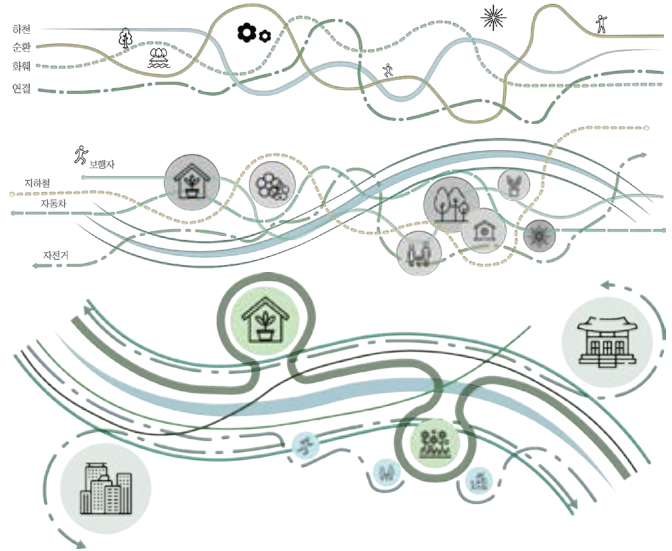


서오름을 위한 각종 보호규제와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인해 대상지는 대규모 개발이 불가하였으나, 서울과의 접근성은 좋았기에 각종 상품작물 및 화훼유통단지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이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해제 및 신도시 개발이 검토 및 진행되고 있다. 갑작스러운 대상지의 변화가 예고된 현 상황에서 기존 화훼유통단지 입주주민 및 지역 원주민들은 갈 곳을 잃게 되었고, 우리는 이를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기준에 이 지역의 맥락은 하천 굴곡과 도로의 선형을 따라 주로 형성되었다. 대로에 면한 부분은 도로에 수직적으로 비닐하우스가 배치되었고, 반대편 강변 부분은 하천 굴곡과 평행하게 건물들이 배치되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계획할 때에도 기존의 맥락을 유지하고자 같은 원리를 적용시켰다.

## ZONING STRATE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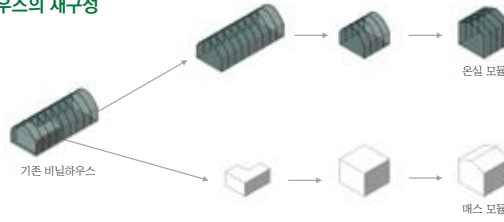


성격이 다른 두 구역은 하천으로 단절되어 그 차이가 더욱 심해진다. 하지만 단절의 역할을 하던 하천을 오히려 연결로써 활용했다. 하천을 따라 화훼의 기억이 이어지며 양쪽 구역을 오가면 곳곳에 화훼가 연결되어 하나의 '꽃길'을 형성한다. 또한 서오름에서 흘러온 물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신도시로 흘러가며 그 사이에서 화훼마을과 하천은 중요한 연결 다리로 간접적인 흐름을 불러 넣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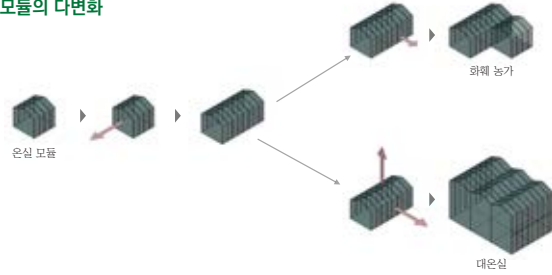
STRATEGY & DETAIL

비닐하우스의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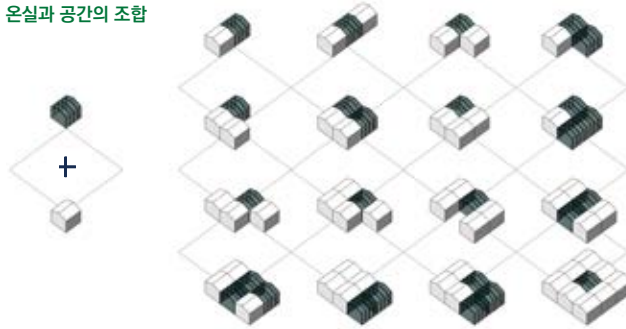
기존 존재하던 화훼농가들은 비닐하우스로 조성되어 있었고, 비닐하우스 내부에 또다른 메스가 추가되어 생활공간 등 다양한 공간을 구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는 법적문제, 안전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고, 따라서 우리는 비닐하우스와 내부 메스를 분리시켜 모듈화 시켰다.

온실 모듈의 다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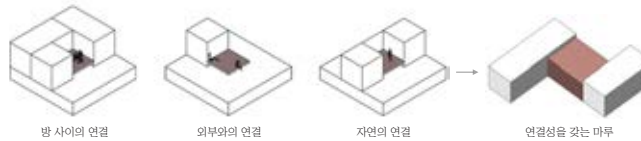
기존 비닐하우스의 장방형의 형태를 보전하기 위해 온실 모듈의 길이를 늘리며 변형한 뒤 배치해보았다. 이렇듯 새로 변화된 모듈을 통해 기존 비닐하우스가 담당했던 화훼 농가의 형태를 만들었고, 더 나아가 이를 윗방향과 앞으로 확대시켜 대문실을 구성하여 식물들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했다.

온실과 공간의 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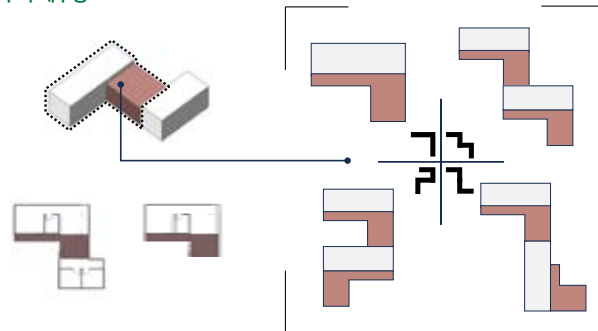
앞서 소개된 온실모듈과, 기존 비닐하우스 내부 메스에서 추출된 메스모듈을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하여 구성했다.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 내부에 마당공간이 조성되기도 하고, 마당이 모여 통로공간이 조성되기도 하며 층정이 조성되기도 한다. 이렇게 공간들을 구성하여 다양한 소비 및 체험공간을 조성했다.

마루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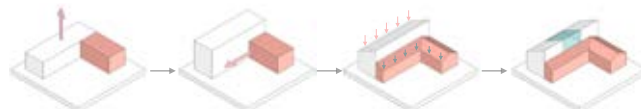
건축적으로 보았을 때 마루는 방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외부와의 연결, 그리고 앞으로, 혹은 다른 방향에 존재하는 자연을 연결 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했다. 우리는 마루가 부여해주는 '연결성'에 집중하여 재해석 하기로 했다.

마루의 재구성



경제성과 거주성을 위하여 메스를 현대적으로 구성하였고 이 메스들에 마루를 통해 '연결성'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연결성은 다른 메스와의 연결 뿐만 아니라 외부 마당과의 연결까지 확장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마루가 연결되어 있는 '기' 형태의 기본 단위로 4가지 타입의 주택을 구성해 보았다.

기본 '기' 단위의 구성



현대 한옥마을은 전부 담장으로 둘러 쌓여 있고 이 담장들 사이에 사람들이 다니는 형식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 길을 걷다 보면 오히려 일반 주택지보다 더 삭막하다는 느낌이 든다. 우리는 앞마당과 뒷마당의 개념을 가져와 앞마당은 마을 사람들이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공 마당을 형성하여 길을 따라 다양한 커뮤니티가 형성 될 수 있게 하였고 뒷마당은 개인적인 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게 담으로 둘러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게 했다.

학생  
공모전부분문  
특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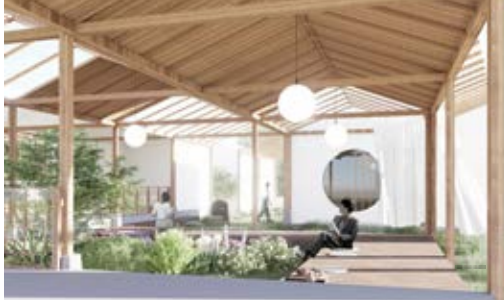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상

화훼의 '기억'

고려대학교  
이하늘  
최지영  
정환석



서오름 화훼단지에서 취급하는 식물을 판매하고 체험할 수 있는 대온실



화훼와 마당 공간이 있는 플라워 카페와 체험공간



꽃과 식물을 이용한 플라워 테라피를 즐길 수 있는 소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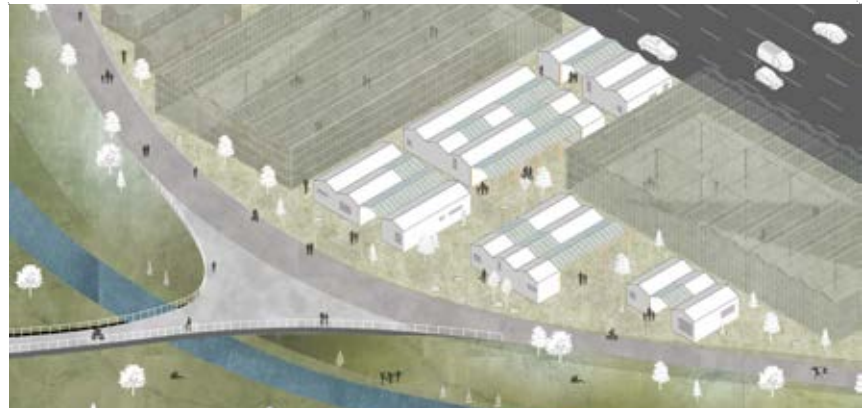
## MASTER PLAN

SCALE 1:1500

- ① 개별 화훼 농가
- ② 대온실 (장방형)
- ③ 화훼 체험 부스
- ④ 대온실 (단방형)
- ⑤ 화훼 테라피
- ⑥ 하천 높이 보행로
- ⑦ 지면 높이 보행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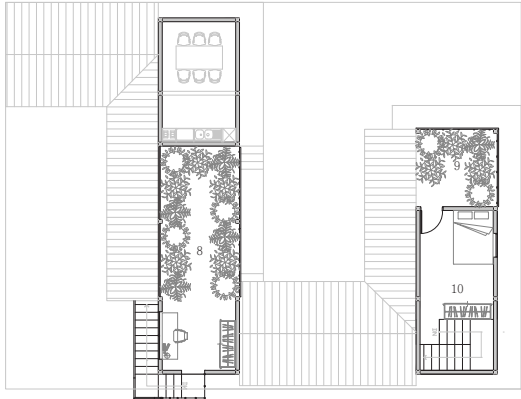
## ISOMETR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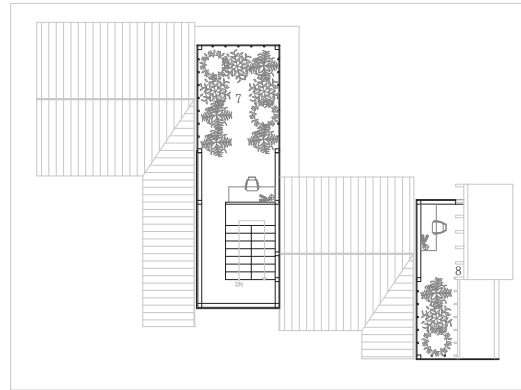
UNIT PLAN

SCALE 1: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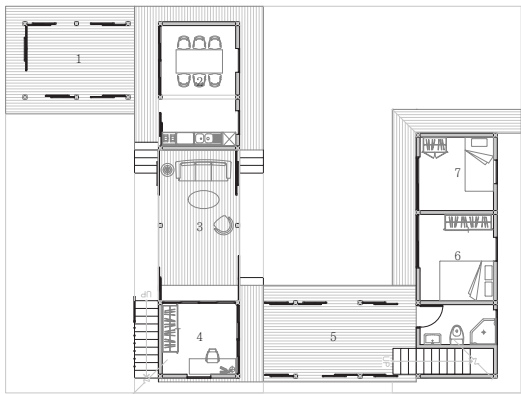
- 8. 큰 온실
- 9. 작은 온실
- 10. 안방

2F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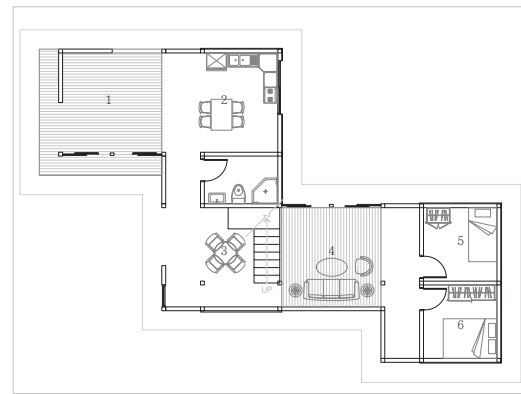
- 7. 큰 온실
- 8. 작은 온실

2F Plan



- 1. 마루
- 2. 주방
- 3. 거실
- 4. 사재
- 5. 마루
- 6. 아이방
- 7. 아이방

1F Plan



- 1. 마루
- 2. 주방
- 3. 전실
- 4. 거실
- 5. 침실
- 6. 손님방

1F Plan



한옥과 화훼, 온실이 조화를 이루는 마을의 모습



각 가구별로 화훼 육성이 가능한 온실공간

# 켜켜이 쌓여가다

-전통이 쌓여 미래를 바라보는 서오농 능안마을 마스터플랜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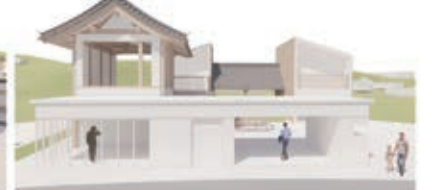
마을 초입부분에 위치한 대경간 목구조 시민청 내부에 중정을 도입, 마을 초입부분에 위치한 대경간 목구조 시민청 내부에 중정을 도입하여 서오농의 자연길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또한, 지하에서 올라가며 서서히 보이는 서오농의 농선은 미지 체험공간 및 상영공간으로 활용하는 듯한 느낌을 제공한다.



본 신한옥 도서관은 서오농의 농선을 따라 그 위계를 존중하며 층층적으로 형성하였으며 각각의 머뜨리움 공간을 통해 활착지붕을 의도적으로 가리며 다음 공간으로 올라가기 위한 켜 공간을 장면을 향해 생성하였다.



한옥 테스를 의도적으로 2층으로 올리고, 2층 테라스에는 1층 콘크리트 테스 중 일부를 열어 열린 공간을 통해 뒷면에 위치한 마을과 길목을 의도적으로 벽을 빼지않아 켜를 형성하여 한옥이 직관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하였다. 1층에는 유리를 활용하여 접근성을 높여 공공성을 보이지 않아 공공성을 유발하는 효과를 준다.



1층 콘크리트 테스 중 일부를 열어 열린 공간을 통해 뒷면에 위치한 마을과 길목을 의도적으로 벽을 빼지않아 켜를 형성하여 한옥이 직관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하였다. 1층에는 유리를 활용하여 접근성을 높여 공공성을 강화하였다.



전면에 위치한 일마뽀은 전통건축의 사형재 공간으로 외부의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이다. 일마뽀을 통해 두 현대식 목구조 주택 사이에 위치한 대청과 앞 마당이 하나의 켜를 통해 가려져있으면서도, 투명한 재료를 통해 내부의 관람을 용이하게 하였다.



현대식 눈집 지붕과 그 아래 마루를 이용하여 하나의 켜를 형성함과 동시에 지붕과 처마 사이를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창틀과 같이 자연스럽고 다음 공간을 상상하여 걷는 동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문화재는 어디로 가야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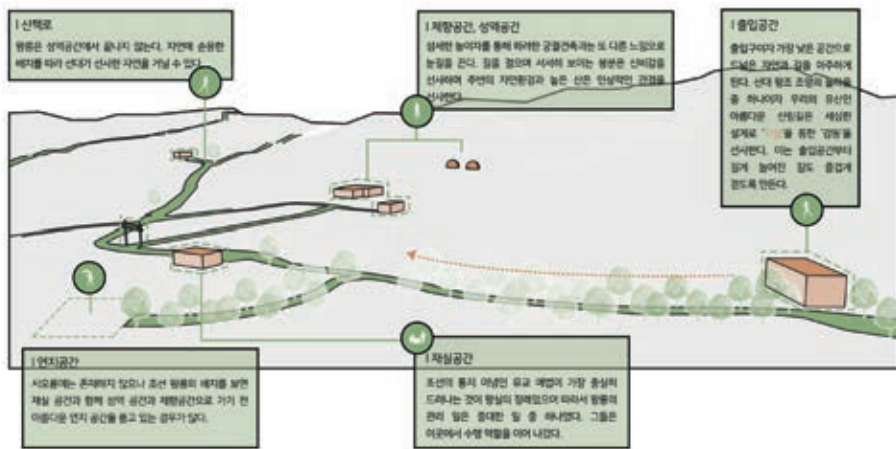


말뚝에 실제로 올라 체험공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우리의 선조는 땅이 어떤 풍경과 함께 하길 바라며 살았을까를 직접 상상할만큼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한다. 자연은 기꺼이 그들의 배려에 되어주고 있고, 황룡만이 가진 친인함은 찾아오는 이들에게 애디온 경험을 선사한다. 그렇게 이 땅에 그리고 우리의 오랜 삶에 부러워한 유산이 그 위치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기만 하다. 따라서 기존의 역사성을 지닌 문화재는 유지되고 보존하면서도 다채롭게 변화하는 현재의 삶과 이해관계가 어우러지는 문화재 보존을 함께 나아가야 한다. 이는 단순히 전통을 유지하기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무거운 기둥을 안정화한 재료로 바꾸어 표현하고 구체적인 부재를 기술력을 통해 새장한 부재로 바꾸어 전통을 표현할 수 있다. 또한 한옥의 입면적인 외관을 이용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배치 개념을 차용하여 전통 한옥을 표현할 수 있다. 이는 구체적인 한옥의 형상에서 일찍이 디자인적인 새로운 한옥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듯 한옥의 기본 개념은 유지하면서도 마태에 맞게 변화하는 새로운 한옥을 통해 문화재를 보존하면서도 앞으로의 미래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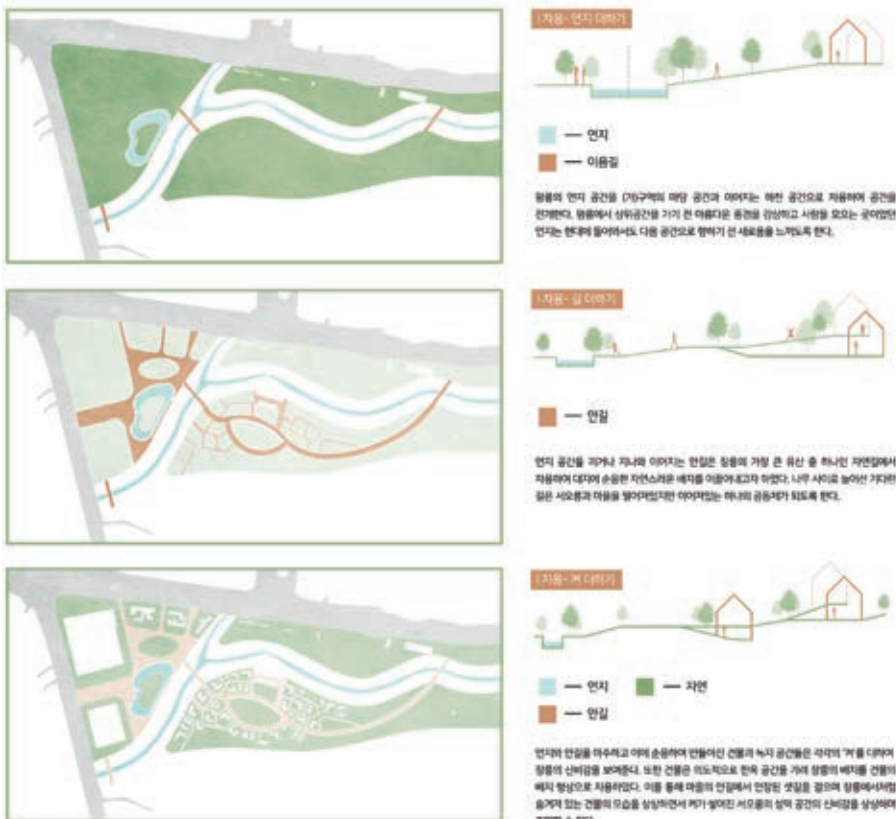
학생  
공모전부분  
금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상

왕릉의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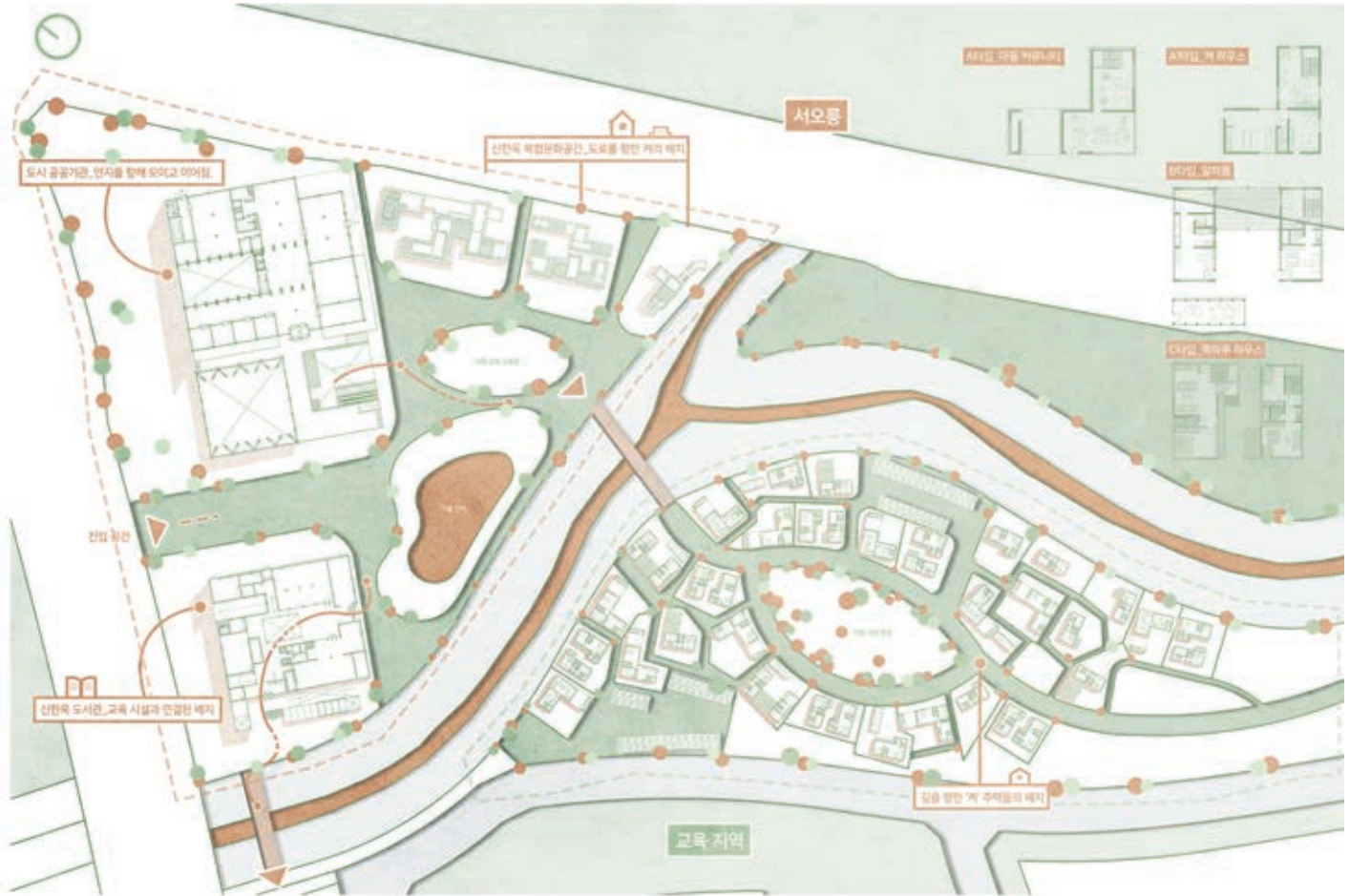
창릉을 마을로 끌어오다 \_ 배치 다이어그램



켜켜이 쌓여가다

- 전통이 쌓여 미래를 바라보는 서오릉 능안마을 마스터플랜 제안

명지대학교  
강민지  
이지영  
정연희



마을지도





(다)구역 \_ 켜 쌓기



장형에 들어서 산책공간으로 접하는 길들은 상이한 설계 즉 다양한 '가법'을 통해 상이한 공간을 상상하도록 하였다. 이는 특히 자연의 요소를 이용하여 설계하였다는 점에서, 인상감이란 이를 통해 건축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장소의 신비감을 더했다는 점에서, 인상 깊다. 본 객사처럼은 이 설계를 '기'로 채택하여 서로움이 높은 산책길을 만들도록 설계하였다. 동시에 다들라 서로움이 분할된 공간이 아닌 마을같이 연결된 공간으로 만들도록 하였다.



1 켜 다하라-옥상 마당

본 설계안은 한옥의 입면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기 보다는 장형에서 자물한 켜를 옥상마당에 적용하여 한 집 뒤에서 바라보는 주거 형식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마당의 실을 통해 드러난 켜는 주거 환경으로부터 계단의 공간이 손질되도록 하고, 가려진 켜 뒤 사이 곳곳으로 보이는 어둠다움을 집중하고자 하였다.



1 켜 다하라-일마루

본 설계안을 모듈화한 주거 형식 시스템 중 일마루를 계로 작용한 형식으로 현대적 복구조 층에 서어 드러난 한옥 마당 공간을 완전히 드러내기 보다는 한층 공간을 이용하여 시선을 한 계 차단하였다. 이 일마루 공간은 어둠의 마루와 공간과 프라이버시 공간을 이어주는 공간으로, 한층 마당의 이음과외 경, 즉 공동체적 삶과 개인적 삶의 사적인 삶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일마루 공간은 다단계에 비해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다. 투광성을 가진 공간을 통해 계를 밟고, 외부에서 내부의 경향을 용이하게 하여 계단의 질감을 풍부하게 하고 계단을 이어주는 공간을 조성한다.



1 켜 다하라-농업 마루

본 설계안을 한옥의 배치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 기존 한옥의 전통적인 채로 및 입면 디자인인 기와, 보, 도리 등의 사용을 최대한 배제하였다. 서가재를 작용한 후에 디자인, 한옥의 나자, ...자 배치 형식 등 한옥의 형식 적용에 집중하였다. 또한 현대적인 채로를 사용한 농성지붕 등의 한옥 요소를 재차하여 전통의 이음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한옥의 변주를 통해 과거에서 미래까지 지속 가능한 삶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준다.

(가)구역 \_ 프로그램 다이어그램



“고양시는 매년 국제꽃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화훼 산업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기존에 고양시가 집중해 온 화훼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구조, 신품종 개발 등에서 변화를 만들고자 한다.  
 화훼를 활용한 ‘마을기업’을 구상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화훼거래의 중심지로 거듭되어 진흥지역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 컨셉



**골목 그리고 지붕**

과거의 골목은 어른들에게는 대회의 공간, 아이들에게는 놀이터를 선사해주며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는 공간이었다. 골목은 좁아 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도 역할을 해낸다.

서오름에서 내려다보는 마을은 평소엔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른 시선으로 지붕을 볼 수 있다. 서화마을에서의 세 가지 시선은 '서오름에서 바라보는 지붕, 건물 옆에서 바라보는 지붕, 건물보다 아래에서 바라보는 지붕'이 있다.




**마을의 속시지 우물**

과거 우물은 사람들이 모여 마을의 크고 작은 일을 정하는 모임의 장소였다. 또한 마을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소문이 시작되는 곳일 만큼 우물은 마을에서 사람들이 모여 미미가 많지 않는 곳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독특한 모습을 한 것도 아니고 크기가 엄청 큰 것도 아니다. 그저 마을에 자연스럽게 숨어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마을 사람들을 불러왔다. 조용하지만 지산의 역할을 다하여 사람들의 발걸음을 불러 오는 우물의 모습을 현대와 한국의 모습으로 재해석하였다.


### 마을 구성




### 구조 해석




나무결을 서로 직각으로 교차시킨 CLT를 이용하여 복구조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했다.



특히 입방부재 보강 철물을 설치 하여 복구조의 고층화를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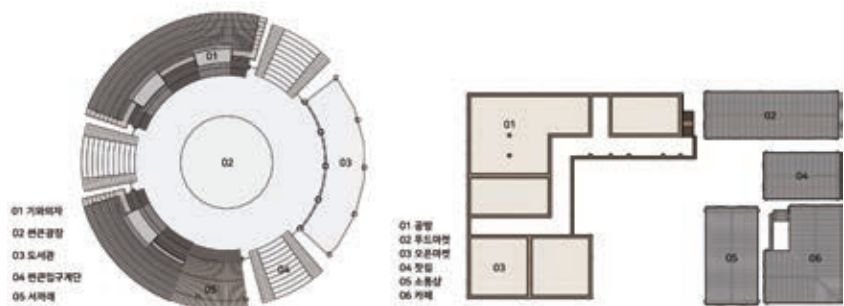


특히 골방, 소의뜰방 등 대형 건축 물에 이를 적용하여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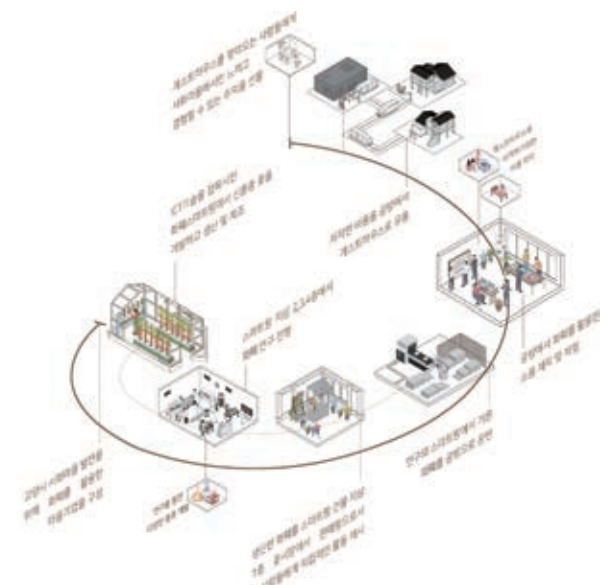


마을에서 가장 큰 스택홀 구조는 콘크리트로 코어와 콘크리트로 거간을 적용한다.

### 세부 구성



###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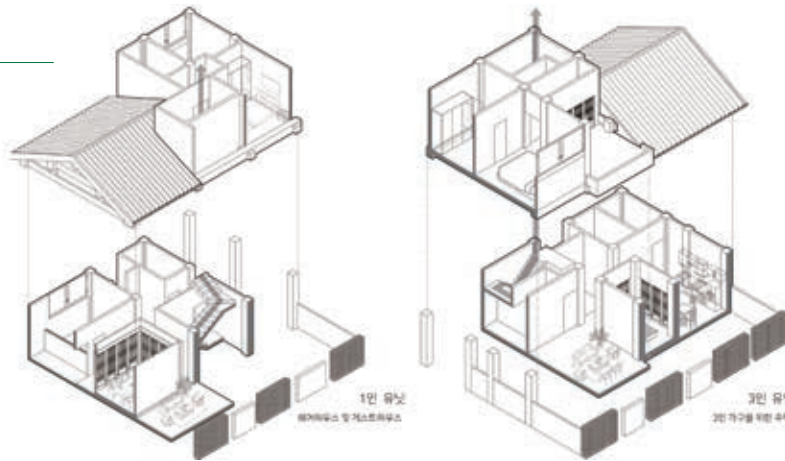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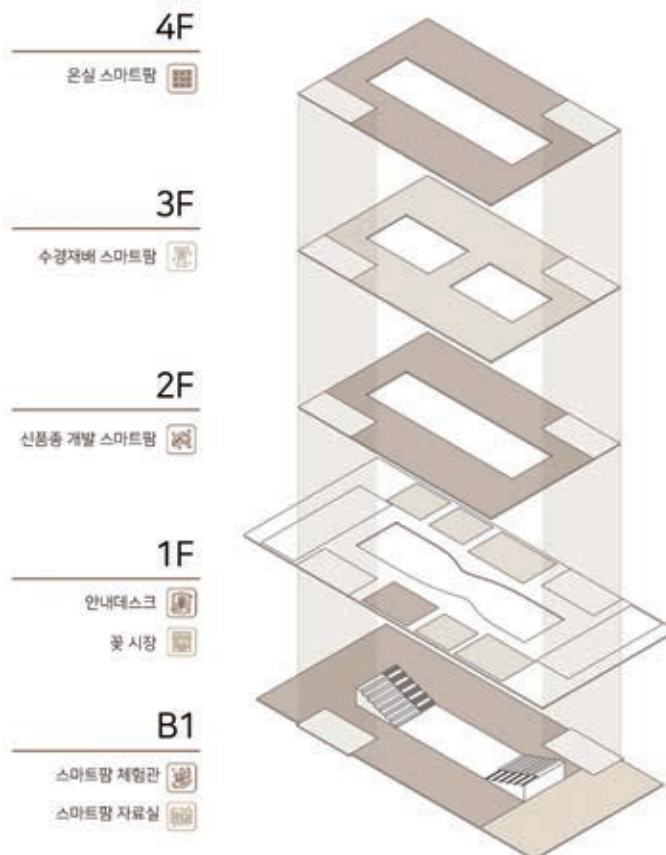
# 학생 공모전 부문 은상

건축공간연구원장상

## 주거유닛



## 스마트팜 층별 구성



## 시.서.화(視胥花)

- 함께 꽃을 보는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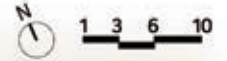
금오공과대학교

이한나  
김승현  
김주현  
김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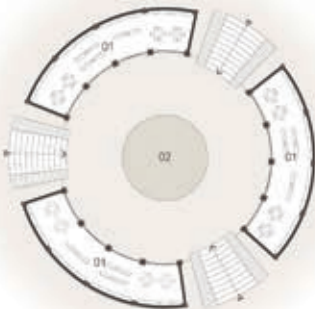
공방 1층 평면도



스마트팜 1층 평면도



도서관 지하 평면도



1인 가구 평면도

3인 가구 평면도





공방



스마트팜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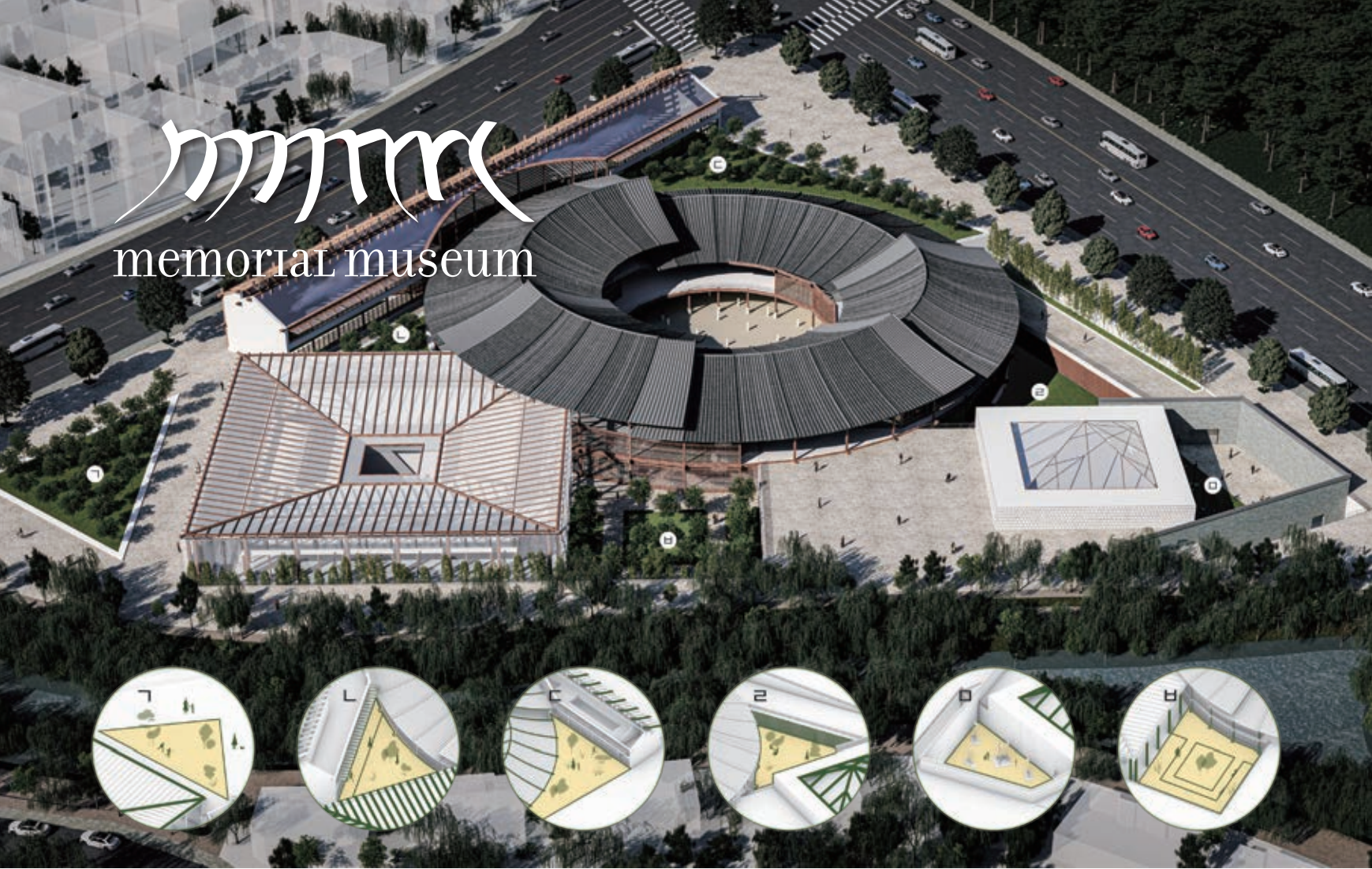
주택





# 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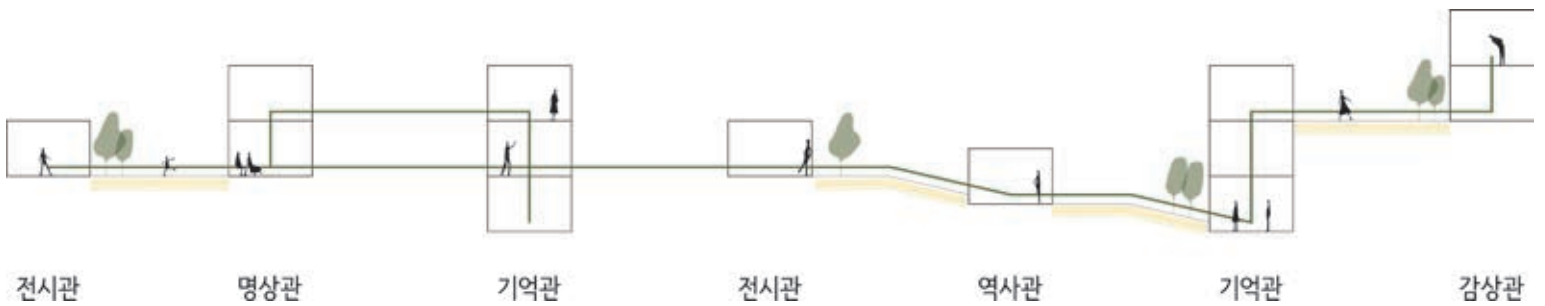
memorial museum



## 주요 공간별 다이어그램



## 주요 공간별 레벨 구성





## memorial museum

다들 한 번쯤은 누군가를 떠나보낸 기억이 있지 않으신가요?

나의 부모, 형제, 친구 등 대상은 다르겠지만 이 질문을 읽고 마음 속에 떠오른 누군가가 다들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간은 살아서 흔적을 남기고, 죽어서 기억을 남긴다고 합니다. 우리도 떠나보낸 누군가를 가슴속에 기억하며 살아가듯이 생각합니다. 또한, 서오릉도 누군가의 무덤이라는 점에서 릉을 흔적의 기억으로 바라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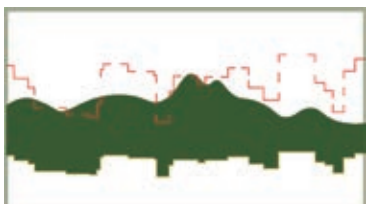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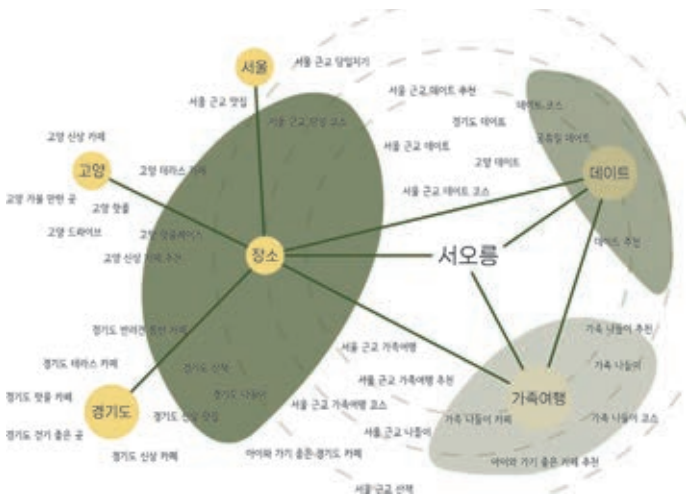
기억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릉에 대한 기억을 떠올릴 때 각자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서 생각한다면 흔히들 유물, 관련 문화재, 역사 등이 떠올라 객관적인 사실이 됩니다.

릉에 대한 기억을 떠올릴 때 각자의 감정을 이입해서 생각해 봅시다. 슬픔, 그리움, 외로움 등 다양한 감정들이 떠올라 릉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릉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인 감정을 공간에 담아내기 위한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은 뮤지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로젝트의 방향성은 기억에 대한 뮤지엄으로 공간을 풀어내고자 했습니다. 또한,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서오릉에 대한 경관이었습니다. 작년 논란의 중심이었던 장릉의 이슈처럼 고층의 건물이 서오릉의 경관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 주변에서 바라보는 서오릉의 아름다운 경관을 막아서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층만 지상에 남기고 나머지 층은 지하화를 통해 서오릉의 경관을 사이트 일대에서 최대한 많이 담아내고, 매스 역시 서오릉의 아름다움을 조화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한옥에서 빛을 다루는 방법과 한옥의 구조 및 특징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전체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방문객들은 한옥의 매력을 곳곳에서 느끼며 일방향적인 지식 습득이 아닌 스스로 사색하며 서오릉에 대한 가치와 역사를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 컨셉



## 학생 공모전부분 은상

건축공간연구원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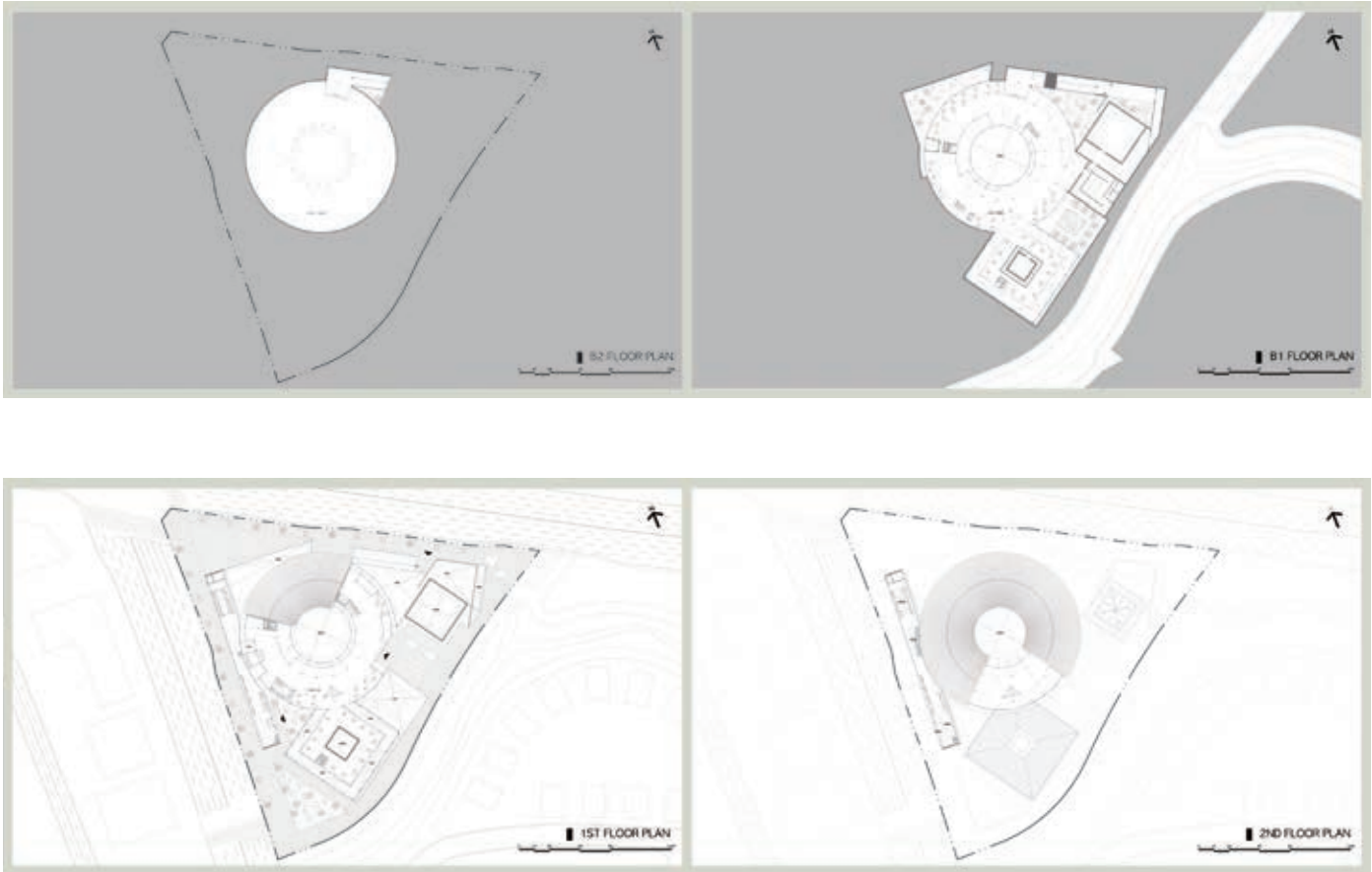
## memorial museum

국민대학교  
공성호  
김강인  
김민재  
연유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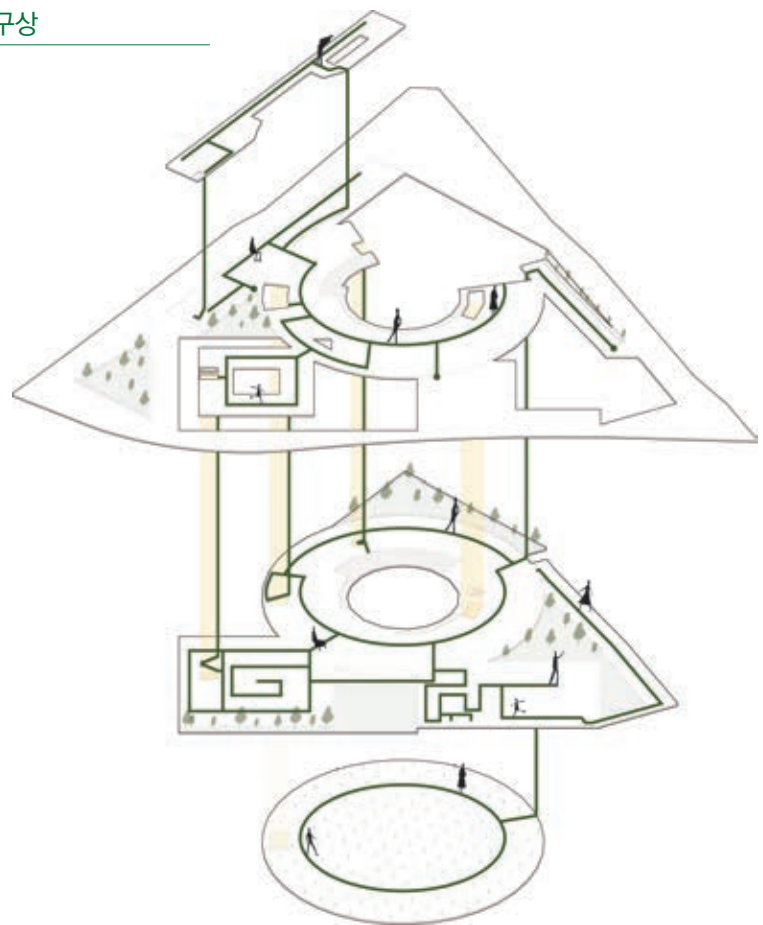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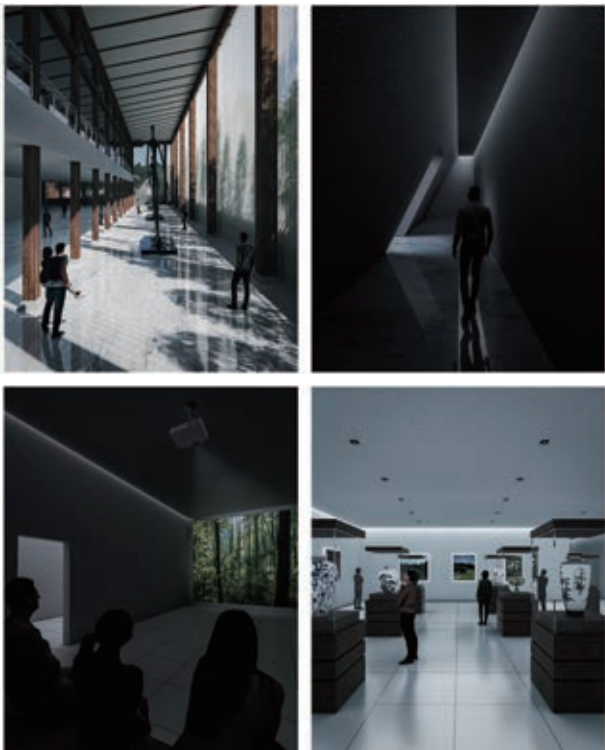
<p>장르</p>	<p>역사관</p> <p>경사로의 경사를 따라 사선으로 날아치는 지평층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축으로 배치된 전통 문명 재인의 상은 다양할 속의 통일성을 보여줍니다.</p>		
<p>기둥</p> <p>원대루</p> <p>주춧돌</p>	<p>기억관</p> <p>각층마다 원대루와 같은 테라스 공간과 2개의 층과 최하층 입면 정도 차이를 통해 새로운 리듬을 느낄 수 있습니다.</p>		
<p>돌이영개</p> <p>추녀</p>	<p>감상관</p> <p>돌이영개의 개방감을 통해 서오릉의 경관을 극대화함과 동일한 간격의 기둥은 추녀를 모티브로 하여 차분할 속 역동적인 리듬을 가집니다.</p>		
<p>세탁재</p> <p>주춧돌</p>	<p>명상관</p> <p>세탁재를 설치하고 한 기둥은 반투명성 특성의 일호를 표현한 돌이카보네이트와 만나 안과 밖을 부드럽게 연결함으로써 내외부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허물어줍니다.</p>		
<p>돌담</p>	<p>전시관</p> <p>미국적인 리듬이랄 지를 위해 외벽은 한국의 돌담으로 구성되어 돌이영의 조화를 추구하고 내부를 외부로부터 분리하여 내부의 공간성을 유감합니다.</p>		



층별 평면도



층별 구상







**건축개요**  
 위치: 경기도 고양시 왕릉동 일원  
 건축률: 33%  
 용적률: 75%  
 대지면적: 18,355m<sup>2</sup>  
 건축면적: 6,100  
 연면적: 13,900  
 최고규모: 지상 9층  
 용도: 판매시설

메이플정원개



보통에 맞는 새로운 핵심기 대지 위로 둘러거면서 자연속에 나온 공간의 활용되어 휴식과 공감을 제공한다  
 각 각의 요소를 연결해 주는 회랑을 형성하고 늘려가 형성하는 부분을 끌어 대고로 연결해 주변 대로에서의 접근성을 높인다.  
 광대 마당의 시각과 분위기의 누가 형태와 형태로 공간을 두어 마당으로부터의 자연 스러운 출입을 유도한다.  
 직간이되는 요소를 사용하여 주요 건물들의 주 이용 동선으로 사용하여 주변 자연 환경을 부담시킬 수 있는 저항의 기능을 적도록 한다.

구조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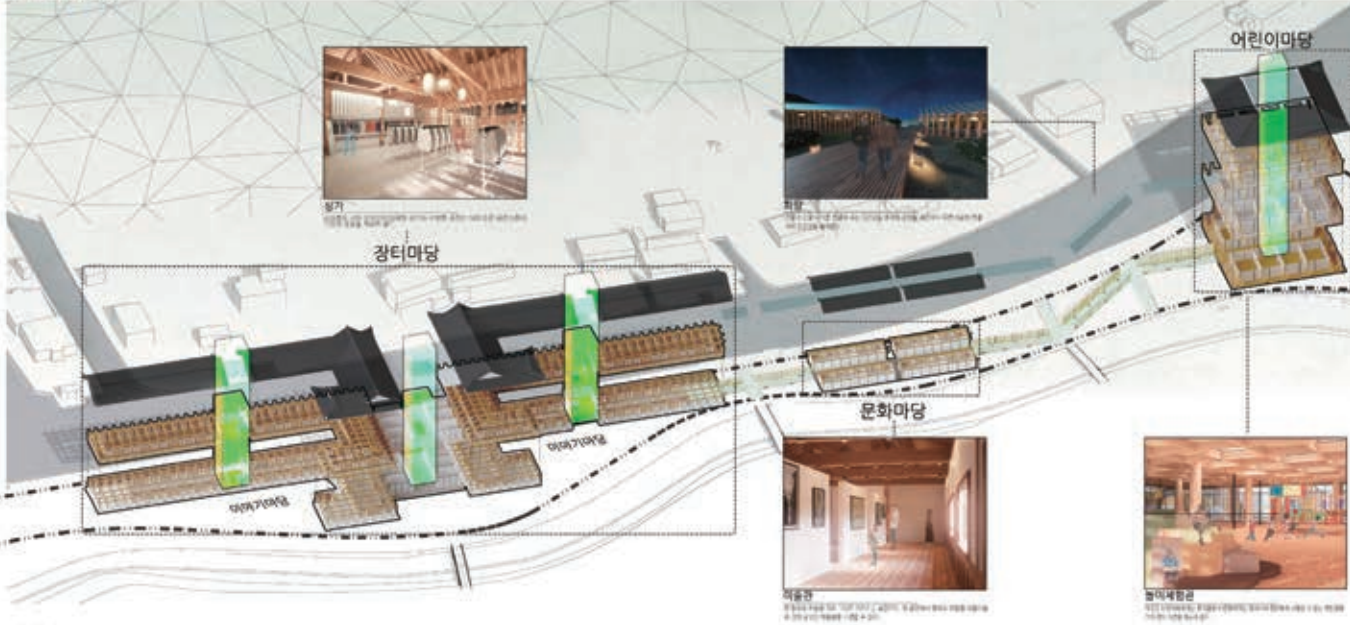
**결구방식**  
 전통의 정자, 2000년 이래 활용되어 온 정자 방식에 21세기 현대적인 디자인을 접목하여, 전통의 정자 방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였다.

**일루미네이션**  
 건물 외벽과 내부의 조명 환경을 고려하여,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하여 밝고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집성목재**  
 100% 친환경 목재 사용에 의해 친환경적이고, 구조, 기능, 미적 가치를 충족시켜 나만의 공간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

**중목구조**  
 목재의 단열 특성을 살리고, 200년 이상 사용 가능한 목재의 특성을 살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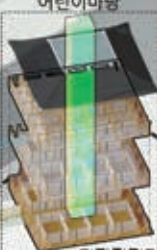
프로그램 및 주요공간



장터마당



어린이마당



문화마당



어린이마당



어린이마당

내부투시도



내부투시도





# 다 채, 한옥을 꿈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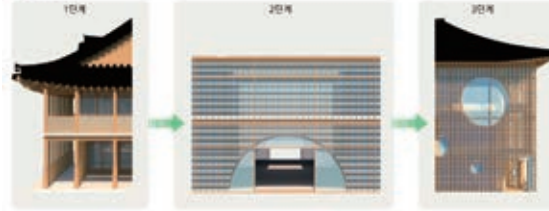
한옥이 선사하는 다양한 경험

1. 포물로그



중요한 문화유산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환경 보존의 중요성, 시오름의 남벽과 서벽으로 계3기 신도시 중 하나인 장흥 신도시가 들어선다. 그렇다면 중요한 문화유산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환경이 속에 있는 아름다운 자연 여건 모습만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시적으로 우리는 한옥이라는 서오름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3기 신도시의 육묘인 거점거점을 위한 필수 상업시설과 주민들의 사회적 인식과 상호작용을 형성하는데 필수인 도시공간을 합친 한옥형태의 공원을 떠올렸다는 새로운 형태의 한옥 어울림을 제시한다.

2. 도면의 재해석



거주 요소지가 아닌 통유리를 두어 개방감과 채광성을 확보한 한옥과 건물 양호 환경을 지향한 육묘로 건물, 거리의 사용과 건물 양호 환경이 안에서 여권아이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높이가 설계가 들어간 한옥까지 다양한 한옥을 경험할 수 있다.

3. 대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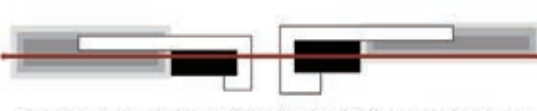
사이드 주변 고층 사설의 분포를 통해 다양한 단채가 거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설의 외 벽쪽에 위치한 서오름을 비롯한 주변 녹지 공간의 특성으로 우수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단채로 이루어져 있어 공간의 활용도가 제한적이다.

4. 대지특성 반영



대지의 저층과 고층부분은 약 4M가량의 높이 차이가 난다. 대지의 높이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최상의 높이를 각각 1.5M씩 높였다.

5. 내부계획



여기 거의 채와 그 채의 벽은 번 공간은 자연스럽게 여당이 되어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공간이 된다. 여당이 형성된 공간은 여당으로써의 기능을 형성하여 사이드 외부와의 교류 연결하여 도시로 영역을 확장한다. 건물속들과 여당의 한 공간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여의 활동이 이루어져야 건물 건축 속에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건물 공간을 누에 달고 도시 조성을 하는 '여당'이 된다.

6. 외부공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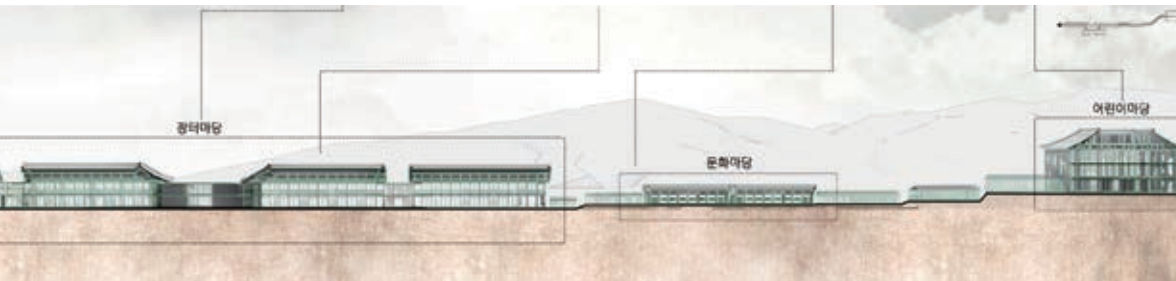


건물의 여당과 안에 자연스레 생긴 공간은 자연스럽고 영구적으로 도시의 필요로 채움을 받아야 하는 주변 자연 환경을 받아들여 공간의 녹지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7. 2층평면도



8. 1층평면도



학생  
공모전부분  
동상

건축공간연구원장상

다채

동양미래대학교  
김주한  
권희경  
노시온







# 학생 공모전부분 동상

건축공간연구원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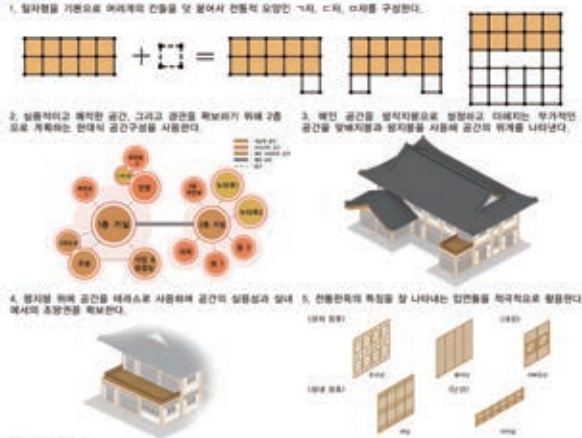
조화, 도화

동양미래대학교  
김민준  
박서연  
김영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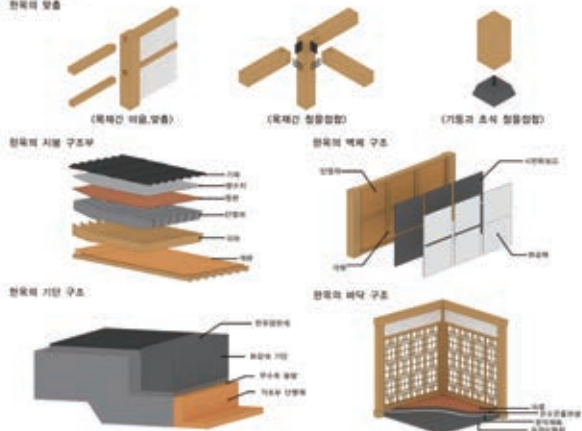
### ▶ 단지 프로세스



### ▶ 유닛 디자인 모티브



### ▶ 한옥 구조



### ▶ 유닛 설명

(사차형 유닛)

A: 거실(주방) 휴안방  
C: 세제 D: 화장실  
E: 서재(복합실) F: 방  
G: 다목적실 H: 샤워부스  
I: 도복소실

총 면적 : 187.8㎡  
1층 면적 : 118.8㎡  
2층 면적 : 77.8㎡  
300㎡ 기준 용적률 : 82.8%  
300㎡ 기준 건폐율 : 38.7%  
총 세대수 : 22세대

(특징)

- 승강장과 잘 보이는 벽체로 우회처리
- 남향의 거실, 안방, 식당 등 주요실 배치
- 안방에는 화장실과 도복소실이 같이 마련되어 편의 기능
- 2층에는 승강장을 위한 복도 부속이 있어 차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 차내입구와 서재는 2층에 존재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C차형 유닛)

A: 거실(주방) 휴안방  
C: 세제 D: 화장실  
E: 서재(복합실) F: 방  
G: 다목적실 H: 샤워부스  
I: 도복소실

총 면적 : 218.6㎡  
1층 면적 : 118.8㎡  
2층 면적 : 100㎡  
300㎡ 기준 용적률 : 73.2%  
300㎡ 기준 건폐율 : 38.9%  
총 세대수 : 17세대

(특징)

- 넓은 2층 면적
- 안방과 잘 보이는 복도를 두어 방 내외부에 쾌적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음
- 남향에 배치한 녹지부와 차내입구 쪽으로 연결 됨
- 2층 거실에서 외부 녹지로 바로 나갈 수 있음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 ▶ (사차형 유닛)

(사차형 유닛)

A: 거실(주방) 휴안방  
C: 세제 D: 화장실  
E: 서재(복합실) F: 방  
G: 다목적실 H: 샤워부스  
I: 도복소실

총 면적 : 182.8㎡  
1층 면적 : 137.4㎡  
2층 면적 : 55.4㎡  
300㎡ 기준 용적률 : 64.2%  
300㎡ 기준 건폐율 : 43.8%  
총 세대수 : 5세대

(특징)

- 넓은 안방의 거실
- 남향에 부속과 차내입구 등실 및 식당 위치
- 외부로 연결된 4인방
- 안방에는 도복소실과 화장실 부속을 같이 배치
- 2층에는 차내입, 서재 등 개인 공간 위치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D차형 유닛)

A: 거실(주방) 휴안방  
C: 세제 D: 화장실  
E: 서재(복합실) F: 방  
G: 다목적실 H: 샤워부스  
I: 도복소실

총 면적 : 241.8㎡  
1층 면적 : 188㎡  
2층 면적 : 53.8㎡  
300㎡ 기준 용적률 : 88.5%  
300㎡ 기준 건폐율 : 39%  
총 세대수 : 8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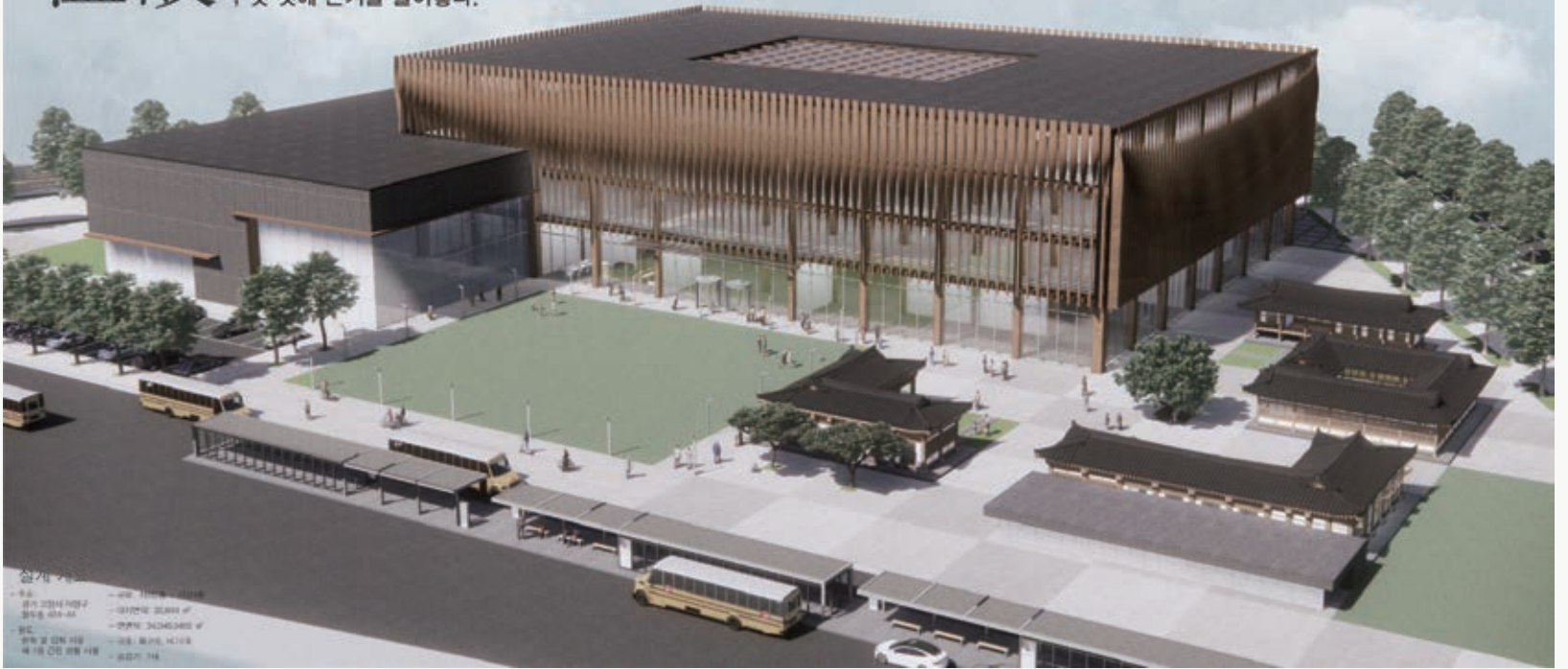
(특징)

- 개인공간과 공용공간을 중요로
- 1층에는 넓은 거실과 휴안방의 존재
- 계도복과 샤워부스 녹지부
- 넓은 안방으로 300㎡ 이상씩은 설치해 배치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 溫故 ; 옛 것에 온기를 불어넣다.



실제 기공  
 - 공사 2024.07.01  
 - 완공 2024.12.31  
 - 면적 3,200,000㎡  
 - 용도 문화 및 교육 시설  
 - 지역 부산, 낙동권  
 - 용도기 1차



### 컨셉\_그리드

### 매스 발전 과정

### 기동 유닛

### 프로그램

**한옥 공간의 가변성**

한옥의 공간적 유연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다양한 용도에 활용할 수 있는 모듈형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본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이다. 이를 위해 기동 유닛을 도입하여, 전시, 공연, 회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Type Exhibition

Type Tournament

Type Exhibition

Type Conference

### 입면

### 구조

### 상세 단면도





# 학생 공모전부분 동상

## 건축공간연구원장상

### 서론

최근 들어 한옥의 인허가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세기부터 모더니즘이 주류 사조로 자리 잡고, 국제주의 양식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빠른 발전을 위해 채택한 콘크리트 위주의 건축 양식이 주를 이루는 시점에서 한옥의 정체성을 살리는 것이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SNS 등을 통해 미디어에 그 어느 때보다 한옥이 많이 노출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실제로 한옥이 지어지는 수는 줄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대중들의 무의식 속에서 한옥은 사람이 안에서 머무는 [건축물]로 인식되기보다는 장식적인 [오브제]로써 인식되고 있다고 보인다. 한옥은 더 이상 실용적인 건물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기능과 효율만이 최고 가치였던 근대 사회를 지나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는 사회이다. 효율성만을 따진 건축물보다는, 다소 실용성이 부족하더라도 문화적으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건축물이 더 매력적으로 인식되는 이 시점이야말로 한옥이 부활하기에 최적의 타이밍이다. 이제 한옥은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한옥의 여러 특징 중 현대사회에 적합한 것은 극대화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 가변적 평면 논리를 극대화하고 기존 한옥의 지붕을 재해석한 이 공모안으로 한옥의 특징들을 살리면서도 실용성을 도모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함을 보여주고자 한다.

溫故而知新, 可以爲師矣 - 옛것을 연구하여 새롭게 응용할 줄 안다면 충분히 스승이 될 수 있다. 여기서 溫故는 '옛것에 온기와 생명을 불어넣는다'고 해석되기도 한다. 이 공모안이 제안하는 新한옥이 꺼져가는 한옥의 온기를 다시 데우고, 널리 퍼뜨리는 스승의 역할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때가 되었다. [정갈한 평면논리]와 [공간의 가변성]을 극대화하고 '한옥의 지붕'에 대해 새롭게 해석한 이 공모안이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新한옥의 모습을 여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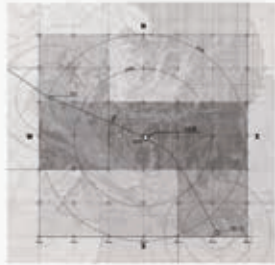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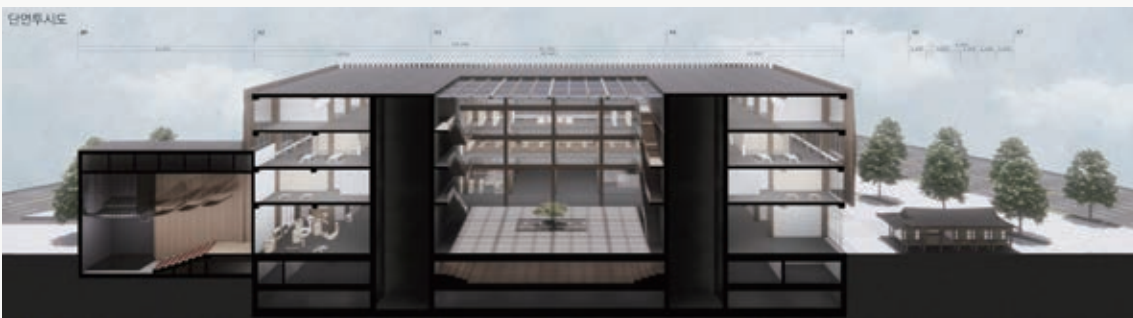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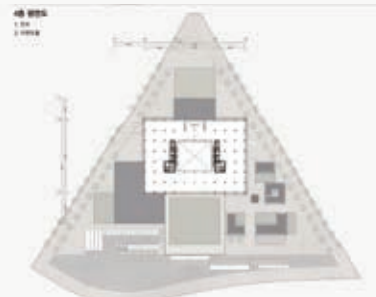
대상지 분석

주어진 공모대상지는 고령시항과 서울 시청을 잇는 최단 거기에 중간에 위치해있다. 서울에서 고령시로 이동하기 전에 반드시 지나야하는 보행로에 있는 대상지는 서울시의 경기도 복무를 잇는 교통요충지로서의 잠재적 가능성이 높보인다.

북쪽 문화 센터와 함께 그 접근성을 높여주는 버스 환승센터를 설치해 경기도 복무의 서울을 잇는 새로운 연결을 꾀하고자 한다.



평면도



### 溫故;

옛 것에 온기를 불어넣다

성균관대학교

문연정

김지은

이지민





개요 : 들어가며

'여자를 위한 마을'이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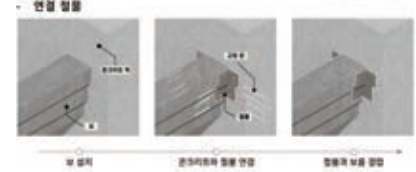


'세상을 넘어 마을'



친환경, 교통, 역사와 문화, 전통

구조



설계 개념

'조화롭게 하다'



도시적 조화, 자연적 조화, 사람들과 조화

'담장'의 이야기

담장은 공간 속 사리를 분리하는 하나로 구성된다. 하지만 외부로 무척 개방된 '담장'이다. 이는 개방과 함께 담을 구성하는 자연적 요소, 담과 주변부의 조화를 철저히 고려해 구성되었다. 담은 소용돌이치는 형태로 구성하여 외부와 내부의 경계를 부드럽게 완충시켜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벽체 사용처와 프라이버시 확보, 사생활 보호, 골목길 형성



벽체 구획, 담장 스케일 다양화, 구획 안 공간 생성



'담장'의 기능



'담장'의 기능 다양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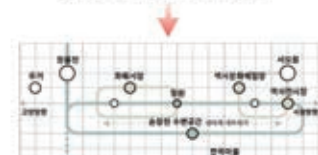
세로로 늘어난 담장은 '여자를 위한 마을'을 구성한다

프로그램 구성

상가부 프로그램



연계상 부동 및 인접상 부동 접근성, 판매용 공간을 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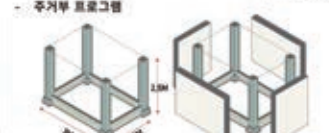
순환형 수변공간

도심권에 반영한 순환형 수변공간을 통해 수변공간으로 활용, 직간접 수변 공간을 형성한다

확적시점, 역사문화체험장, 역사전시장

고양시의 주요 선의 역사 시점인 '역사문화, MICE 관광 사업'을 통해 시민 참여형 전시 공간인 상가 프로그램 설치, 지역 특색 반영 등 지역 산업 연계를 통한 교류의 활성화

주거부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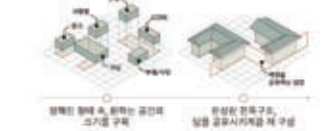


'한'의 모듈화, 프라이버시 확보

3m x 2.5m 기준 모듈화, 2.5m 이하 높이를 적용하여 프라이버시 확보, 2.5m 이하 높이를 적용하여 프라이버시 확보



주거 설계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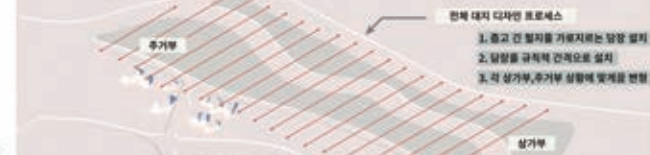
확적 설계 후, 최적의 공간의 크기 구성, 완성된 주거부, 2.5m 이하 높이를 적용하여 프라이버시 확보

디자인 프로세스

1. 초기 디자인, 2. 1차 디자인, 3. 2차 디자인, 4. 3차 디자인



확적 디자인 프로세스



1. 초기 디자인, 2. 1차 디자인, 3. 2차 디자인, 4. 3차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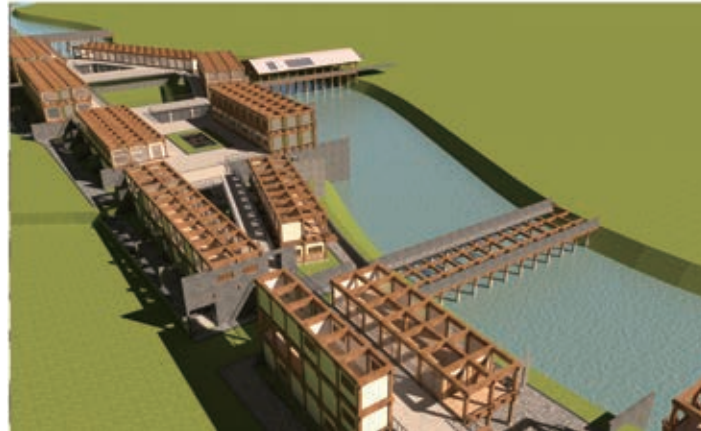
주거부 프로그램, 1. 초기 디자인, 2. 1차 디자인, 3. 2차 디자인, 4. 3차 디자인



# 학생 공모전부분 입선

건축공간연구원장상

부분 투시도



## 담장 너머

동양미래대학교  
이다운  
이준우  
임상준

단면 투시도



# 물꼬 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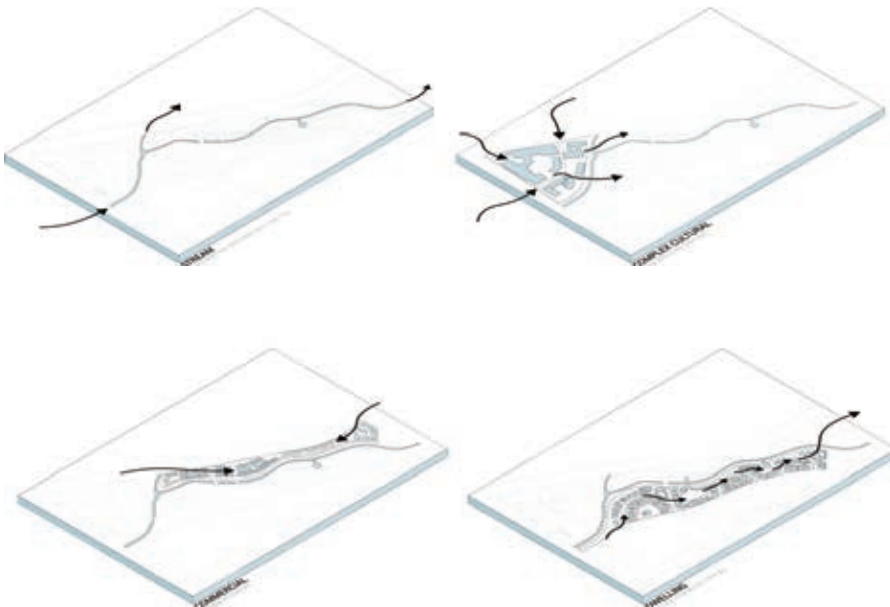
'물꼬'는 논에 물을 대거나 빼기 위해서 논두렁을 만들어놓은 좁은 물길을 말한다.

대상 사이트의 북동쪽에는 서오름이 위치하여 있고, 서쪽에는 문화공원과 각종 주상복합시설이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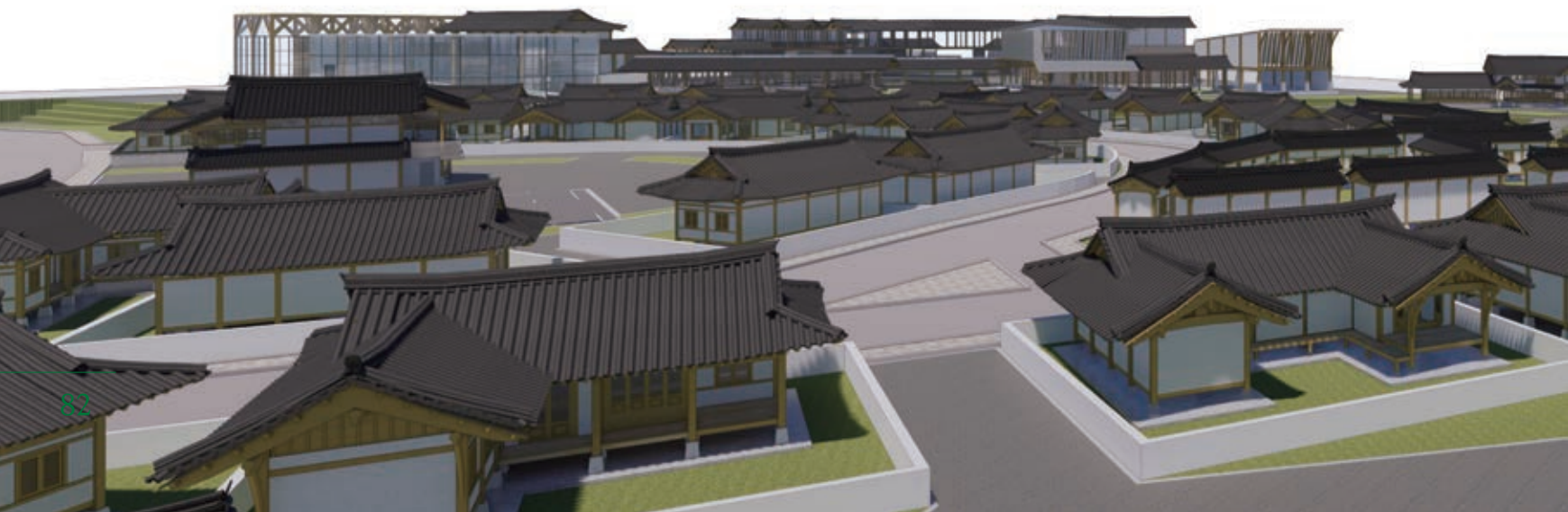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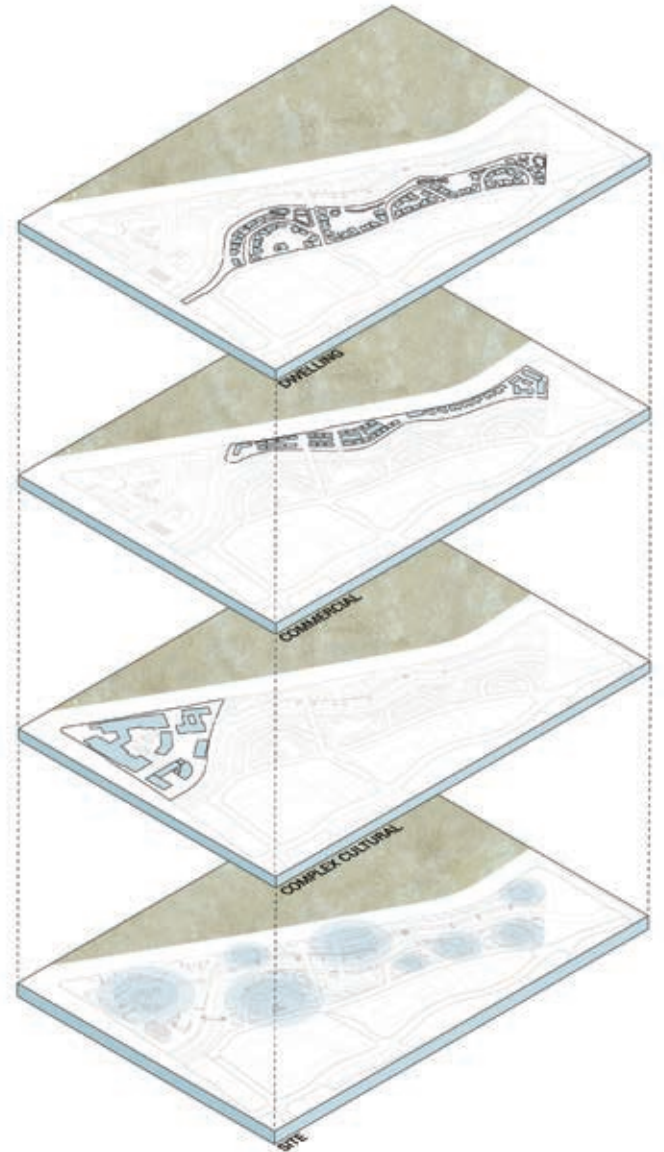
서오름 일대의 잘 정비된 산책로와 역사적과 새로 개발되는 문화 및 생활 영역을 대상지에 자연스럽게 이어주고 사람들을 유도한다.

순창천을 이용해 단지 물이 흐르는 천과 그 옆에 산책로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 서오름 주변 문화 시설의 물꼬를 틀어 뺏어나가게 하는 서오름 능안마을을 제안한다.

CONCEPT DIAGRAM



SITE DIAGRAM





## PERSPECTIVE VIEW

### (가) 구역

대지경계선에 맞춰 뻗어나가는 건물 구조와 복합상업시설과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이 위치해 있으며 썬큰(sunken) 광장을 통해 사람들을 받아주는 형태와 사람들을 나누역, 다구역으로 물꼬를 트는 역할.

썬큰(sunken) 광장에서 사람들이 다채롭게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으로 형성.



### (나) 구역

부지 내로 자연스러운 동선유도를 하여 사람들을 끌어옴.

서측은 상업지구, 중앙은 f&b, 민가형태로 구성된 동측의 공방거리로 형성.

상업지구는 인근 거주민을 위한 공간, f&b는 외지인을 위한 공간, 공방거리와 공방센터는 전통공예인과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써 서로 어우러지게 됨. 중앙의 회랑 산책길, 공방거리 산책길, 하천산책길을 통해 다채로운 산책로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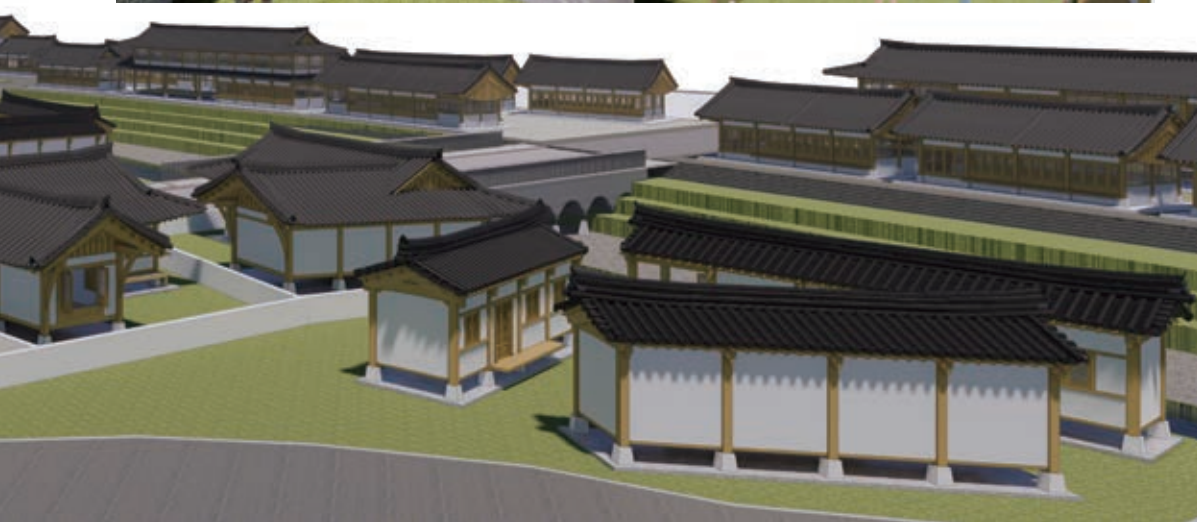
### (다) 구역

마을을 관통하는 산책로를 통해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오릉 주거단지 구성

산책로를 통해 서오릉으로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유도.

주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산책로 출입시간 제한.

사회초년생들을 위해 원룸 한옥 주거를 제공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주거가 형성.



# 학생 공모전부문 입선

건축공간연구원장상

## 물꼬 트다

명지대학교

임정현

이준해

김민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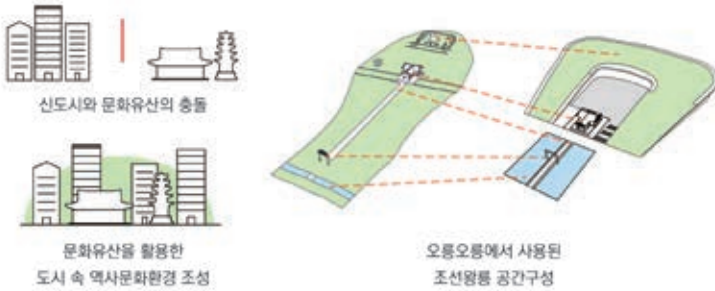
# 오릉오름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랑로		
규모	지상 1층, 지하 1층		
대지면적	30,644㎡		
건축면적	6802㎡	연면적	17020㎡
건축률	22.2%	용적률	22.5%

## 도시와 문화유산

신도시 개발은 기존 그 주변의 도시 환경,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다. 새로 조성되는 창릉 신도시 또한 파편화된 고양시 덕양구의 도시들을 연결하는 자족-생태 신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창릉 신도시의 광범위한 개발 안에서, 신도시는 문화유산과 만나게 되었다. 도시와 문화유산의 만남은 언제나 조심스럽다. 인천 장릉 신도시의 사례처럼 문화유산에 대한, 또 그 주변 환경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다면, 도시는 문화유산의 환경을 해치곤 했다.

## 컨셉



신도시의 광범위한 개발 속에서 도시와 문화유산의 조화로운 만남을 위해, 문화유산의 고유한 맥락을 도시로 이끌어내었다. 사이트 인근의 문화유산인 서오릉을 모티브로 설계하여,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고 도시로 확장하고자 한다.

## 사이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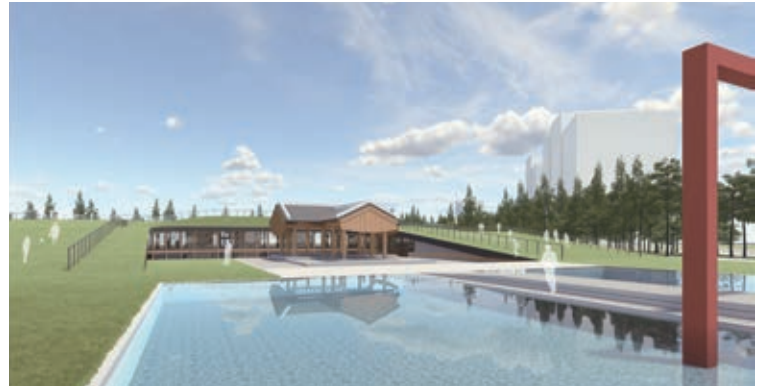


2022년 특례시로 지정된 고양시에는, 현재 108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고양시 동서로 위치한 2개의 신도시 중 하나인 창릉 신도시는, 덕양구에 위치하여 기존 주택지구를 연결한다.

고양 창릉 신도시 개요	지향하는 목표
37,889세대	연접 지역과의 상생
83,290명	도시와 자연의 공생
2029년 준공	세대를 이은 자생



창릉 신도시 주변에는 4개의 공공 도서관이 있으며, 그 중 가장 큰 도서관은 15만권의 장서를 보유한 화정도서관이다. 창릉 신도시의 개발로 늘어나는 인구를 생각했을 때, 추가적인 도서관 시설이 필요하다.



사이트는 신도시 내 특화계획구역으로써 동쪽으로 서오릉을 접한다. 사이트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순창천을 기준으로 남쪽으로는 주거용 한옥마을과, 북쪽으로는 상업용 한옥마을과 연결된다. 사이트 남쪽의 CMD(복합기능중심구역)와 함께, 인근에 초·중·고등학교가 있어, 다양한 목적과 연령대의 사람들의 왕래가 예상된다.

가) 구역은 나) 다) 구역의 한옥마을과 창릉 신도시의 중간 지점으로, 도시와 역사문화환경이 만나는 지점이다. 가) 구역에 문화유산을 모티브로 한 지닌 현대 시설을 설계하여, 도시와 문화유산의 맥락이 조화된 공간을 만들고자 한다.

## 프로그램 \_ 도서관과 전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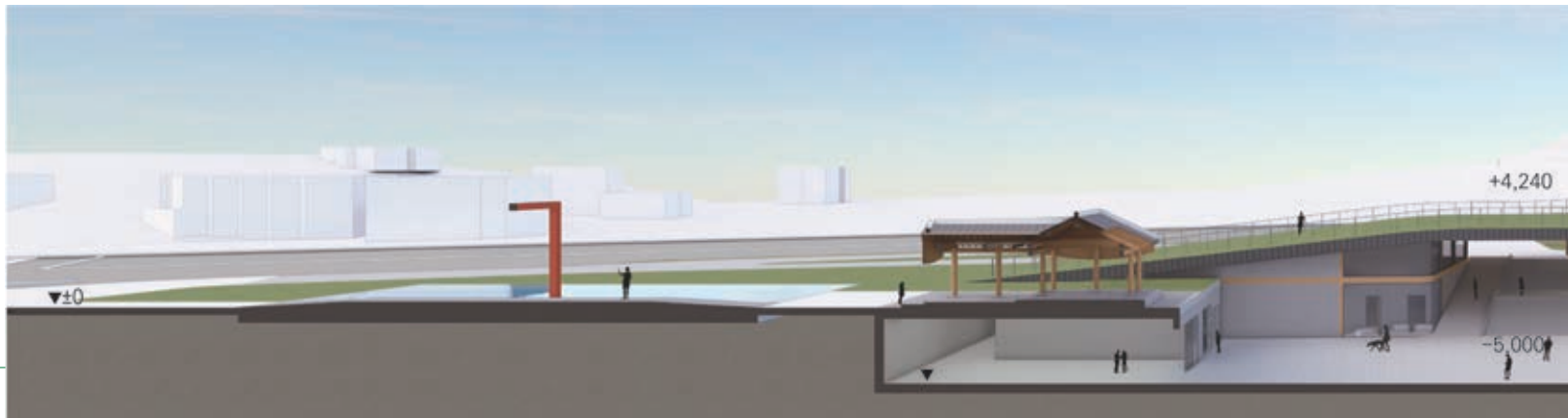


도서관을 계획하면서, 서오릉과 한옥마을의 관람객도 수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해 열린 도서관으로 계획하였다. 또 고양시에서 진행되는 주제 특화 도서관 사업을 이어 '조선 오레' 특화 서가를 마련하였다.



전체 왕릉 중 2번째로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는 서오릉의 역사문화관은, 방문하는 관람객의 수에 비해 전시 공간이 협소하며, 서오릉의 조성 과정과 이야기만을 전시하고 있다. 따라서 왕릉 전시관을 계획하여 전시 공간의 확장 및 전시 내용을 확대하였다.

## 단면도







# 학생 공모전부분 입선

건축공간연구원장상

왕릉의 재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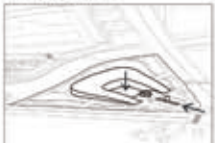


왕릉의 구성을 따른 맥스를 각각 배치, 일체화된 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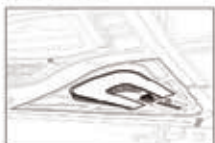
맥스의 높낮이를 조절해 신도시에서 바라볼 때에는 한옥 마을과 연결되는 일면을, 반대로 한옥마을에서 바라본 맥스는 신도시와 어울리게 구성.

보이지 않는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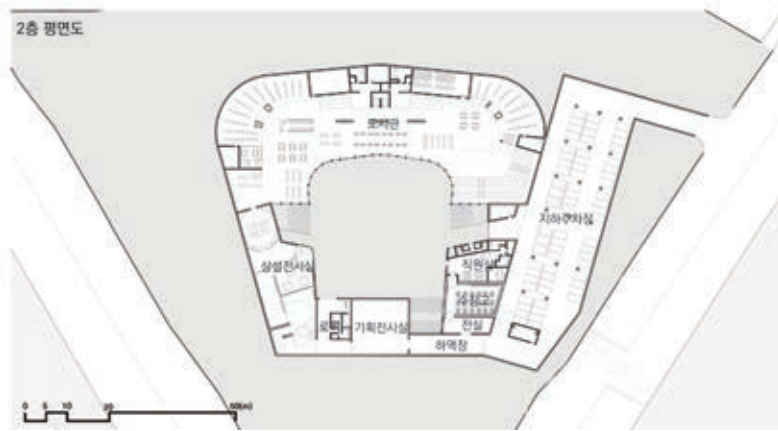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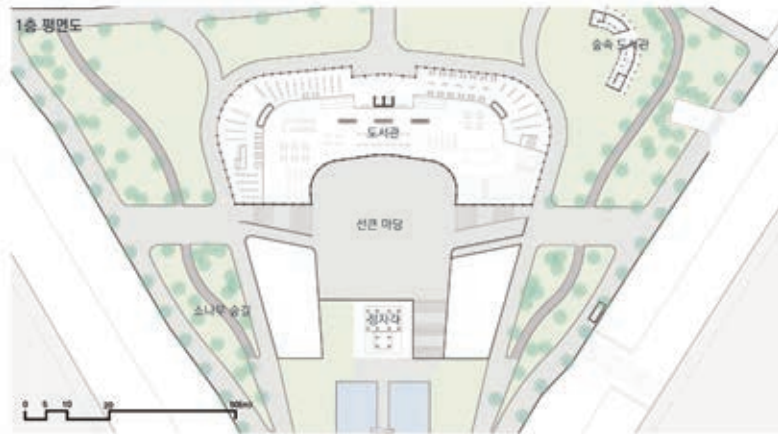


지하에 주요 공간이 모여 있으며, 선릉 마당을 두어 지하공간을 쾌적하게 해줌.

한옥의 재해석



종목구조와 징크지붕을 활용해 한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 오름오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이성민  
안예준  
김영현  
이정민





# 꿈[틀]

예부터 자연과 가까워지기 위한 인간의 소망은 존재하였다.  
현대 사회에 와서 현실이란 틀에 갇혀 꿈보다 눈앞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  
자연을 담고 있는 건물과 서로움이 선사하는 풍치를 이용하여 사람들이  
그 공간 안에서만큼은 꿈의 주인공이 되어 이상적인 경험을 하길 바란다.



## ■ 대지 분석



위치



채광

## ■ 건축 개요

위 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24  
도로현향 4차선 도로, 8차선 도로  
대지면적 30,644㎡  
건축면적 11,090㎡  
연 면 적 16,274㎡  
건 폐 율 36.2%  
용 적 륜 53.1%  
건축규모 자상 3층, 지하 1층  
주차대수 110대



## ■ 형태 구상



- 1층  
1 안내  
2 속소 안내  
3 휴게공간  
4 식당  
5 조리실  
6 소풍공간  
7 주차장 입구



- 2층  
1 옥상정원  
2 객실  
3 휴게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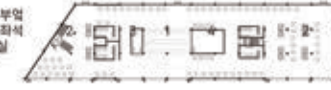


- 3층  
1 옥상정원  
2 객실  
3 휴게공간



0 5 10 25 50m

- 1층  
1 카페 부엌  
2 카페 좌석  
3 직원실  
4 광고



- 2층  
1 옥상정원  
2 카페 좌석



0 5 10 25 50m

견우직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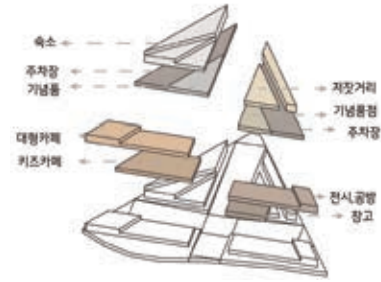
홍길동전



# 학생 공모전부분 입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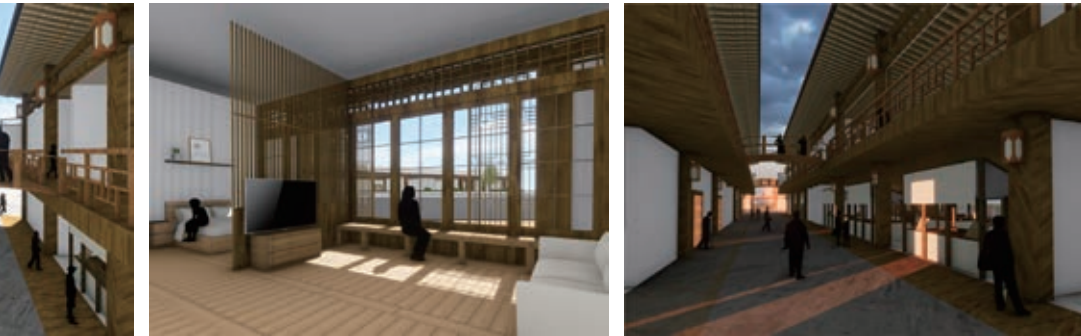
건축공간연구원장상

## 공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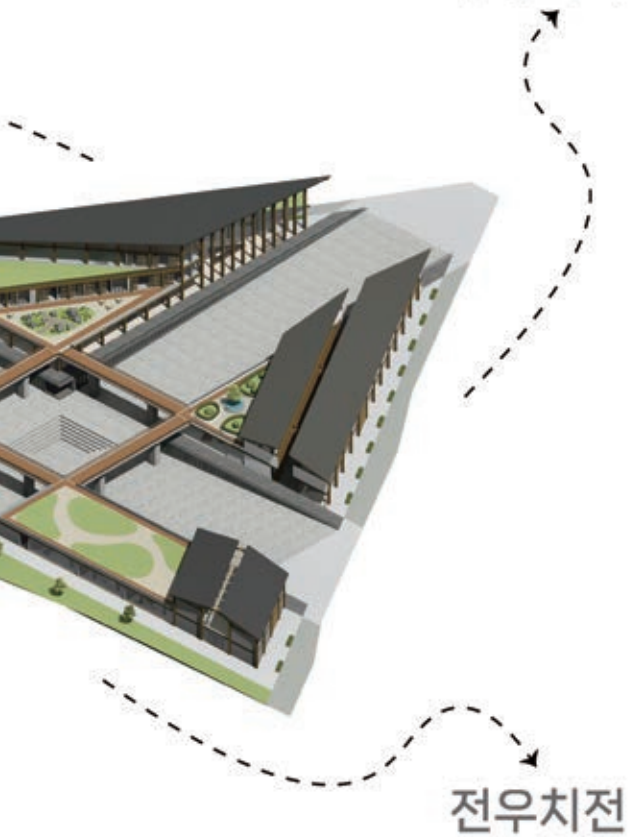


## 설계 개념

우리는 한옥의 형태와 함께 한옥의 정서를 중심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선권을 중심으로 큰 길을 두었다. 그리고 골목을 동으로써 공공의 장소 뿐만 아니라 소소한 재미들을 느낄 수 있는 옛 골목길을 나타냈다. 이와 동시에, 다양한 전통적인 먹거리, 놀거리, 체험, 전시들을 계획하여 옛 느낌을 더 살리고자 하였다. 형태적으로는 층을 높게 하기보단 저층을 활용해 개방감을 주고 전체적으로 서오름을 향해 낮아지는 모습을 띄도록 하여 언덕을 형상화하였다.



## 우렁각시



## 전우치전



- 1층
- 1 루트모프
- 2 골목상점
- 3 유희보관소
- 4 휴게공간
- 5 식당
- 6 밥집
- 7 업컨버전소



- 2층
- 1 옥상정원
- 2 카페
- 3 한과판매소
- 4 프상화작화소
- 5 휴게공간
- 6 상점
- 7 사진관
- 8 한복대어소



- 1층
- 1 휴게공간
- 2 연동 공방
- 3 원자 공방
- 4 조각보 공방
- 5 도자기 공방
- 6 전통간식 공방
- 7 천연 염색 공방
- 8 기념품점



- 2층
- 1 옥상정원
- 2 전시

## 꿈[틀]

동국대학교  
김민서  
권순현  
유니연

홍익대학교  
이형진





우리의 것을 함께  
지키는 길

# 길가온

서로들과 그 주변에 있는 우리 인물의 역사가 담겨 있다. 우리의 소중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당들의 정비가 필요하다. 소박한 한 사람이 호모인인 의의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보다 소박한 한 사람의 문화유산을 지키는 것이 어떤 일이 될까? 그래서 우리는 사당을 모으기로 했다. 사당들의 흠이름이라는 요소들이 어떤 자연스러움과 정실로 정할 것이다.

새마을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지어지고 서로의 관심사로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까지 요소들을 아가리까지가 아니라 서로 다르더라도 어울릴 수 있게 하였다.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다. 20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사당을 모으는 이 일은 서로를 위한 사당에서 만들어진 사당들과 함께 움직이는 날 모든 우리의 것을 함께 지킬 길, 바로 길가온 가운다 길이 될 것이다.



## 개요

위치: 20년 상동 역사 문화마을 예정지역 중 (사)구역  
 지적지구: 제 1군 일반 주거지구  
 용도: 신업용지  
 대지 면적: 10,355㎡  
 구조: 복구조, 조적조, 정권 근거리로  
 규모: 지하 2층  
 주차: 466부 (남·여인 주차, 특수 주차와 62부)

## 대지 역사



경기도 20년상 동북동쪽에 있는 조선 왕실의 왕릉, 이릉의 맞은 서쪽에 있는 5개의 능이 라는 뜻이다. 사적 제172호로 20년 상동읍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다른 조선왕릉과 함께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조선시대부터 풍수지리설에 따라 왕실의 유복을 이룬 곳으로 5봉은 경릉, 남릉, 선릉, 흥릉, 영릉 등을 말하며 그 외에 유종의 흥릉인 후진 남의 묘소도 이곳에 있다.

## 대지 분석



풍수 지리적으로 배산임수 지형이다. 주변 대지와 연계가 가능하다.



상동 역사 문화 마을이 조선시대 배산임수, 세계문화 유산 등 상징적 요소의 연계가 가능하다.

## 배치 개념



1구역: 100부 이상  
 2구역: 100부 이상  
 3구역: 100부 이상  
 4구역: 100부 이상

## 개념

### 1. 산적벽의 연상성



서로들의 산적벽과 연상하여 사당들을 모으는 요소이다. 산적벽을 여러모로 쓴 사당들이 모임을 위하여 여러 활동을 하는 공간이다.

### 2. 사당을 모을 수 있는 요소 배치



정원에서 지평선이 인접하여 여러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 산적벽, 대문, 사당, 정자 등을 모을 수 있게 하여 공간을 구성한다.

### 3. 큰 길에 배치된 연속된 파사드



큰 길에 배치된 파사드에 산적벽의 연상을 하여 공간의 산적벽으로 연상을 부여한다. 산적벽을 모을 수 있게 하여 공간을 구성한다.

## 모듈

### 3m형 상가



상가의 유형을 3가지 모듈로 하여 실용 효율적으로 배치된다. 용도에 따라 규격에 맞는 실을 활용하여 공간을 활용한다. 작은 상가의 모듈을 반복하여 아가리까지 단아한 느낌을 부여한다.

### 6m & 9m형 상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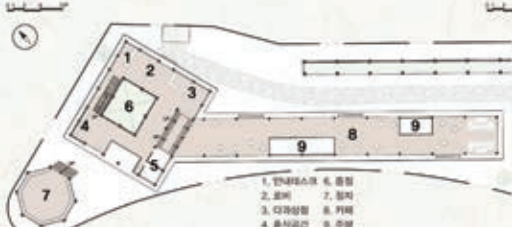


상가의 유형을 3가지 모듈로 하여 실용 효율적으로 배치된다. 용도에 따라 규격에 맞는 실을 활용하여 공간을 활용한다. 작은 상가의 모듈을 반복하여 아가리까지 단아한 느낌을 부여한다.

##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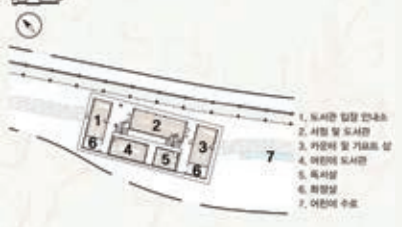
## 7구역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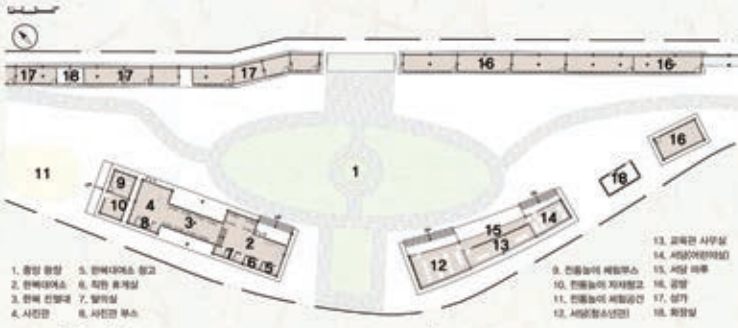
## 7구역 2층 평면도



## 8구역 1층 평면도



## 12구역 1층 평면도



## 2구역 1층 평면도





# 학생 공모전부분 입선

건축공간연구원장상

## 프로그램

### 1. 다과 시설 및 다과 체험관

점의 서단부터 이쪽을 끄는 요소이다. 즉에는 다과와 차를 즐길 수 있는 다과실과 카페 공간이 위치하고 있고 휴식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산책을 즐긴 사람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다. 2층에는 하나 다과를 직접 만들어 보고 맛을 볼 수 있는 다과 체험실이 들어서 있다. 선경의 참담과 절의 경관이 보이는 아름다운 심해체정장과 앞의 후원과 경치가 보이는 계단형 심해체정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 2. 한복 대여 및 전시관

매일 출입구인 중앙광장에 서당과 함께 연결고 있는 한복 대여소이다. 한복을 대여하여 여러 체험들을 할 수 있으며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사진관도 내부에 함께 있다. 4구역은 가난 활동적인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구역으로 사람들이 생기를 느낄 수 있는 구역이다.



### 4. 주차 및 자전거

각종 편의를 즐기며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 및 자전거이다. 각각 옆에 있는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푸드코트, 강연을 즐기며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주차, 내부에서 아늑하고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이 마련되어 있다. 주차에 50여 식사를 할 수 있는 넓은 자리를 마련하여 계상장을 느낄 수 있고 사람들이 서로 여유롭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 전통 서적 도서관

전통 서적과 우리 역사에 관련된 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서적 및 도서관이다. 같이 휴식을 위하여 책을 읽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도서관이 마련되어 있다. 또 야외에도 즐길 수 있는 책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따로 즐겁게 독서를 할 수 있는 야외 전용 도서관도 함께 자리하고 있다.



동서대학교  
정성욱  
이호수

## A-A 단면도 축척: 1/300

1. 다과 체험 입포 2. 휴식공간 3. 카페









영상  
부문







# 대상

국토교통부 장관상

또 다른 한류,  
한옥

수상자 최선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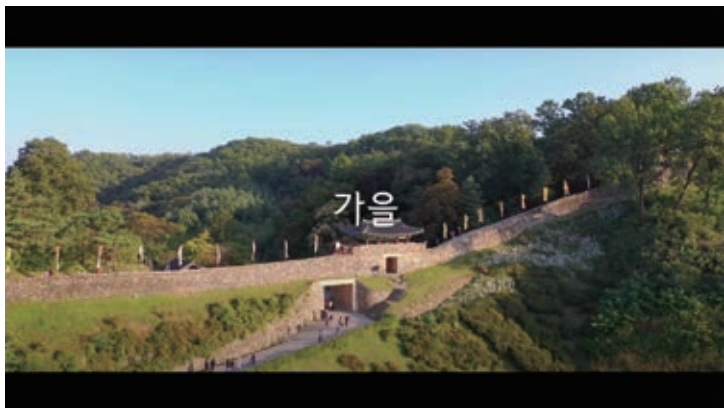




거친 빗줄기에도



마을



가을



# 금 상

건축공간연구원장상

수많은 계절 속  
한옥

수상자      문진성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정가가 흐르는 한옥  
 곡명: 임제의 노래 북천이 맑다컸  
 장소: 이천 라드라비 서경루

# 은상

## 정가가 흐르는 한옥

수상자 양재준  
 백준영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 은상

## 한옥은 언제나

수상자 서영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자연이 주는 바람과 햇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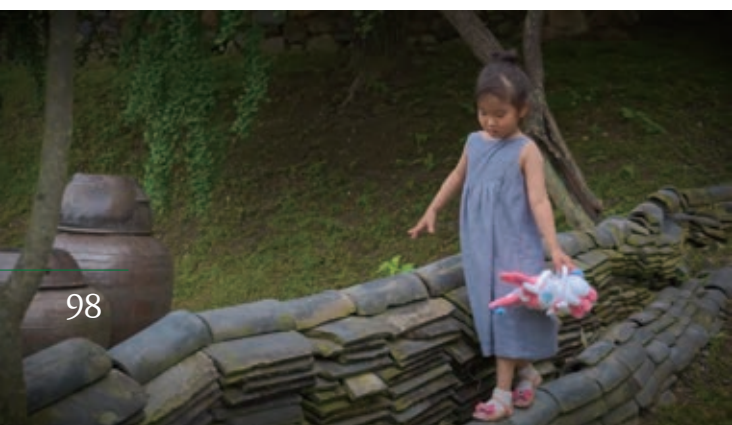
## 동상

### 한옥을 느끼다

수상자 박세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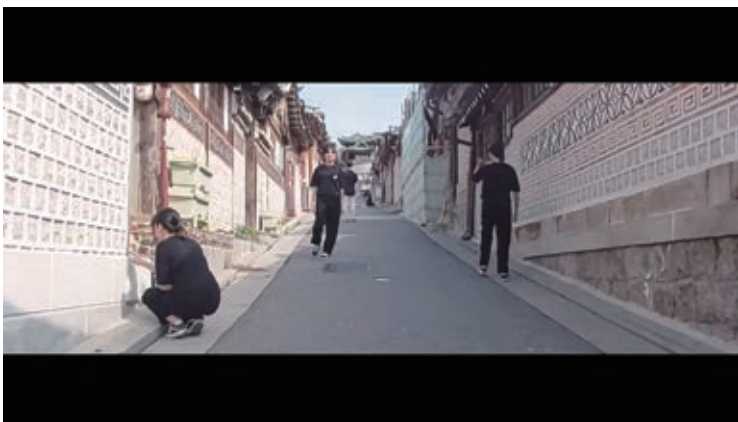


# 동상

## 화서지몽(華胥之夢)

수상자 유초윤  
이다민  
서주아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 입 선

## 걸어서 한옥 속으로

수상자 김준석  
신지현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 입 선

옛 이야기가  
담겨 있는 광양  
인서리공원

수상자 김영문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 2023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작품집

발행처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전화 | 044.201.3783

팩스 | 044.201.5574

인쇄일 | 2024년 2월 17일

발행일 | 2024년 2월 17일

기획 | 건축공간연구원 국가한옥센터 (044.417.9600)

편집·인쇄 |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02.2269.9917)

### 2024©국토교통부

이 책은 수상자들의 동의하에 국토교통부가 편집한 출판물로 각 작품의 저작권은 수상자에게 있으며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은 비매품입니다.